

M 15-10/1989. 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Ⅹ

農村住民의 意識, 價値觀

許 璋(研 究 員)
崔 洋 夫(首席研究委員)
鄭 起 煥(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비

면

머 리 말

자급적 소농경제가 인구과잉의 대가족 노동력에 의해 영위되던 산업화 이전의 농촌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상업적 영농의 농가경제, 그리고 노령 핵가족부부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오늘날의 농촌 환경속에서 엄청나게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이 단순히 그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아닐진대 그가 처하고 있는 제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걸맞추어 꾸준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난 수십년간의 한국사회와 농촌의 변화가 그 안에서 살고있는 농촌주민들의 사고방식에 일정한 변화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사회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사회 각 부문에서 자신들의 의사표현이 분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민들을 비롯한 농촌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단적이고도 체계적인 의사표현을 택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농촌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상당히 그 보수성에서 탈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당 연구원에서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하여 1986년 이후 보고서를 발간해 온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본 조사설계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연구가 기준년도에 설계의 미비로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연구진들의 자체 판단 아래, 이번에 그 분석틀과 문항들을 새로 만들어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따로 독자적인 연구보고서로 참고할 수도 있으나,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연구사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지어 조사대상 주민들이 영위하는 사회, 경제적인 일상활동을 보다 근원적으로 그 의식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의식과 가치관 연구는 이와 동일한 차원의 연구를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실시하여 이 보고서의 결과와 비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촌주민들이 보이는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의 측면을 보다 체계있게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은 뭐니뭐니 해도 바쁜 농

사철에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신 大田 坪村, 論山 野花, 扶餘 松菊, 錦山 大陽의 마을 주민들이다. 이 분들은 이 연구사업의 훌륭한 결과를 위해 기준년도부터 매년 찾아가 귀찮게 구는 조사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웃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이 분들이 조사과정에서 조사팀들에게 말해주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바로 살아있는 농촌주민들의 꾸밈없는 목소리들이었고, 실제 연구활동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이야기다.

아울러 같은 지역경제실에서 여름날 소나기를 맞아가며 현지조사에 참여해준 吳乃元 책임연구원, 金京德 연구원과 朴時炫 전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전산작업에 참여해준 金容任 씨와 黃英伊 여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앞으로 산업화 되어가는 농촌에서 농촌주민들에 대한 농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1989.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목 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1
제 2 장	조사연구의 목적	
	1. 기준년도의 의식, 가치관 조사설계	3
	2. 이 연구의 목적	5
제 3 장	연구문헌의 검토	
	1. 의식, 가치관의 정의	7
	2. 기존문헌의 검토	9
제 4 장	조사설계	
	1. 조사분석의 틀	14
	2. 조사문항의 구성	24
제 5 장	1989 조사결과의 분석	
	1. 응답자 일반현황	28
	2. 조사결과 분석	28
제 6 장	맺 는 말	
	부록 : 농촌주민 의식, 가치관 측정을 위한 가구조사표	81

표 목 차

제 2 장

표 2 - 1 조사항목의 구분 5

제 4 장

표 4 - 1 권위주의와 조작적 정의 21

표 4 - 2 가족주의와 조작적 정의 22

표 4 - 3 집단주의와 조작적 정의 22

표 4 - 4 민속주의와 조작적 정의 23

표 4 - 5 농본주의와 조작적 정의 24

표 4 - 6 조사표의 구성 25

표 4 - 7 조사대상지역 및 인원 26

표 4 - 8 가치지수의 범위 27

제 5 장

표 5 - 1 응답자 일반현황 29

표 5 - 2 가장의 의견존중 30

표 5 - 3 연령별 가장의 권위 30

표 5 - 4 가구내 의사결정 32

표 5 - 5 가족내의 의사결정(1) 33

표 5 - 6 가족내의 의사결정(2) 33

표 5 - 7 가족내의 의사결정(3) 33

표 5 - 8 家の 승계 34

표 5 - 9 장남, 종손의 우대 35

표 5 - 10 가문에 대한 의식 36

표 5-11	친족의 범위	37
표 5-12	친족과의 연대의식	37
표 5-13	제사참석 여부	38
표 5-14	마을배타의식	39
표 5-15	마을 애착심	40
표 5-16	마을 정주의사	41
표 5-17	마을공동활동 참여	41
표 5-18	전통규범의 준수	42
표 5-19	마을공동재산의 필요성	42
표 5-20	사회보장 기능의 담당자	43
표 5-21	마을내 의사결정 주체	44
표 5-22	마을공동신앙에 대한 믿음	45
표 5-23	마을공동놀이, 행사와 주민유대	46
표 5-24	농업의 국가근본의식	47
표 5-25	농사 계속 여부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49
표 5-26	자녀에게 영농 계승의사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50
표 5-27	목돈이 생겼을 때 우선 투자할 곳	51
표 5-28	농사일 사용처	52
표 5-29	농사일 이외 사용처	52
표 5-30	새로운 농사기술 수용의사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53
표 5-31	재배하고 싶은 작물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54
표 5-32	농토매매에 대한 의사	55
표 5-33	농토에 대한 재산의식	56
표 5-34	토양훼손에 대한 의식	57
표 5-35	풍수사상에 대한 신뢰	58
표 5-36	자연재해의 원인에 대한 의식	59
표 5-37	관존민비의식	60
표 5-38	장유유서의 의식	61
표 5-39	남녀평등의식	62
표 5-40	반상구별의식	63

표 5 - 41	변수별 가치체계의 평균점수.....	71
표 5 - 42	가치체계별 변수의 집단화.....	76

그림 목 차

제 4 장

그림 4 - 1	분석틀 구성의 절차	15
그림 4 - 2	농가, 농업, 마을의 변화와 판단, 결정사항	18

제 5 장

그림 5 - 1	변수별 도수분포도 (권위주의)	66
그림 5 - 2	변수별 도수분포도 (가족주의)	66
그림 5 - 3	변수별 도수분포도 (집단주의)	67
그림 5 - 4	변수별 도수분포도 (민속주의)	68
그림 5 - 5	변수별 도수분포도 (농본주의 :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68
그림 5 - 6	변수별 도수분포도 (농본주의 :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69
그림 5 - 7	가치체계별 변수의 집단화	78

비

명

제 1 장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의 변화의 1차적 대상이 농촌사회였고 현대 40년사가 농촌의 변화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궁극적으로 認知하고 體化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한국사회의 변화는 곧 농촌에 머물러 살아 왔던 농민과 농촌주민들의 의식의 변화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파악해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후 현재까지 우리의 농어촌은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 근대화의 과정에서 매우 빠른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공업위주의 일관된 先成 長 정책속에서 농촌은 매년 수십만에 달하는 인구유출을 겪어 왔고, 농업에의 상대적 저투자로 농업의 근대화는 타 산업부문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와 농업경제의 ‘구조적 전환’은 말할 나위 없이 농촌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의식과 가치관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농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의미 뿐만 아니라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는 농업의 상징적 의미 역시 그 비중이 약화되었으며, 도시의 외형적 번성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농촌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나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농촌의 이촌을 부채질함과 아울러 ‘떠나지 못한 사람들’로 남아있다고 하는 소위의식도 누적되어 왔다고 보겠다.

물론 새로운 농사기술의 보급과 아울러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부시책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현대적인 기간적 전업농으로 긍지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외적인 상황하에서 그 의지가 관철되지 못할 때 더욱 커다란 충격이 되리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이후 지역단위에서 소소하게 일어났던 농민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수입개방과 추곡수매, 고추 등 소득작물의 가격유지 등의 거의 모든 농어촌의 쟁점들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全國이라는 단위로 묶여지기도 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변화과정 속에서 농촌주민들의 정치, 사회적 의식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농정의 방향도 구태의연한 권위적, 지시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농촌주민들의 理解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전환의 必要性이 심각하게 제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산업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맥락에서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는 그저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한 일회적인 여론조사식으로 성취될 수는 없는 과제이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외적 요인에 대응하며 변화되어가는 한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의 조사는 縱斷的인 비교·연구가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 2 장

조사연구의 목적

1. 기준년도의 의식, 가치관 조사설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당 연구원에서 1986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온 한국 농촌사회 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연구사업의 조사설계서인 자료시리즈 1-조사연구설계(1986)에서 설정된 본 연구의 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崔洋夫·吳乃元, 1986: 19-42).

한국사회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농촌은 구조적인 변혁에 부딪치게 되었다.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 민주화의 외적 힘은 전통농촌의 소농적 가족경제, 쌀 중심의 자급농업, 그리고 공동체적 마을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사업은 이러한 외적 힘이 농가와 농업, 마을사회에 작용한 변혁의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농가 차원에서는 인구의 감소와 분산가족의 형성, 핵가족화, F사이클의 단절, 농지임대차와 부채지주의 증가, 농가경제의 겸업화, 소비생활의 도시화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농업에서는 자급적 미백농업의 해체와 상업적 농업의 확대, 작목체계의 변화와 지역농업의 형성, 그리고 마을경제, 사회에서는 자급자족적 경제의 해체와 시장경제에의 통합, 공존적 경제관계의 해체와 이해관계에 따른 협동의 새로운 형성, 유교적 공동체질서의 약화와 산업사회화, 마을의 이동성 증대와 개방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전통

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근대적 가치지향이 증대되었다. 또한 아노미(anomie)와 소외의식이 발생하여 가치상실을 일으키는 가치의 위기도 생겨났다.

조사설계는 이러한 변화방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촌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았다.

1) 가치관의 변화

유교주의, 가족주의 농본주의 등 전통적 가치가 평등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등의 민주적인 가치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한다.

2) 아노미와 소외의식의 발생

도시의 성장,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농민의 상대적 빈곤감, 열등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치의 혼란이나 상실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조사항목들은 다음과 같았다.

1) 가치관의 변화

① 유교적 윤리관의 붕괴 : 충효

제사의 범위(조상에 대한 태도)

상속관행

② 가족주의의 약화 : 가부장적 권위주의

서열의식

親疏의식

여성차별

③ 농본주의의 쇠퇴 : 농업관(‘농자천하지대본’의식의 약화)

직업관

자녀에의 직업기대

이촌의사

④ 민속(Mores)의 합리주의화 : 개인주의

합리주의

평등주의

능력주의

⑤ 사회관의 근대화 : 반상의식의 약화

(시민의식의 발달) 결혼관, 福에 대한 관념

민주적 사고
권리의식
자녀에의 교육기대

2) 아노미와 소외의식의 발생

① 소외의식 : 상대적 빈곤감

소외의식

아노미

② 가치관의 갈등 :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지향의 갈등

이렇게 설정된 조사지표와 조사항목들에 입각하여 농촌주민들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항목은 모두 21개가 되었다(표 2-1) 참조).

표 2-1 조사항목의 구분

단위 : 개

		매년조사	매 3년조사	기초조사	계
일 반 조 사 항 목	마을조사항목	4	25	9	38
	가구조사항목	21	22	3	46
	개인(의식)조사항목	-	21	-	21
	소 계	25	68	12	105
기 장 조 사 항 목					

출처 : 崔洋夫·吳乃元(1986), 43 쪽.

2. 이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기준년도인 1986년도의 이러한 조사설계를 보다 체계화, 세련화하는 방향으로 분석틀을 수정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준년도의 조사설계시 설정했던 연구목적과 동일한 맥락이다. 다만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겪는 의식과 가치상의 변화의 측면을 조사대상마을 주민들을 통해 파악한다.

둘째, 그러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농업과 농가, 마을사회의 변화내용에 대하여 가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과적 설명을 보완해 준다.

세째, 아울러 그러한 조사대상마을 주민들의 의식, 가치의 변화로부터 일반적인 농촌주민들의 의식, 가치관 변화의 추세, 경향을 도출하여 미래의 의식, 가치의 변화방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21세기 산업사회하에서의 농촌주민들의 행동 양태를 추론한다.

네째,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농업과 농촌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농촌주민들은 정치적 민주화의 시대적 필연성을 체득하면서, 보다 확실한 의사결정능력과 적극적인 자기의사표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이 겪는 개인적 사고의 갈등과 그 대응방향을 결정해 주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의식 및 가치관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마을 주민들을 통해 이러한 의식, 가치의 갈등을 파악해 냄으로써 산업화사회에서의 대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장

연구문헌의 검토

1. 의식, 가치관의 정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의식, 가치 혹은 가치관에 관해 기존 연구문헌들이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논의를 위한 바탕을 제시하고자 한다.

金瓊東(1965)은 가치 혹은 가치관을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선호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인간행동의 상징적 일 요소”라고 정의하여 대상에 대한 선택을 강조하였다. 王仁權(1983)은 가치가 “개인 또는 집단인 행동주체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의 지향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속성”이라고 하였고, 가치관은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는 바, 일련의 상호연관된 평가적 태도의 총체”라고 하면서 가치관은 가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하였다.

洪承稷(1969)의 연구에서는 가치관이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 신념체계이며 사회성원들의 행동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林煥燮(1980)은 가치가 가지는 개념적 특성으로서 ①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재구성된 추상성, ②특정상황을 초월하는 궁극적 인지로서의 특성, ③제 가치의 체계적 통합성 및 서열성, ④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 등을 들고 있고, 그러나 개인의 구체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에 사회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가치관에 관한 문헌들이 가치를 정의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클라디드 클럭혼의 정의도 여기서 참고로 소개한다. 그는 “가치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양식, 수단, 목적들 중에서 바람직한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성격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하였다(C. Kluckhohn & others, 1951).

한편 의식에 대한 정의는 王仁權(1983)에서 보면 “가치관보다 상대적으로 행동적 지향성 또는 유관성이 높으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현상형태적인 현실적 제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이라고 하여, 가치관이 개인의 보다 추상적인 속성이며 그것을 규정하는 사회의 지배적 신념이라고 한다면 의식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행동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 가치라고 할 때 이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들이 있다. 그 중에서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에 대해 金瓊東(1965)은 “대상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준비상태 또는 반응경향”이라고 정의하고, 기본적으로 가치가 태도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따라서 태도측정을 통해 가치관 연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林熿燮(1980)은 태도가 개인에의 배타적 귀속성과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선택성이 결여되거나 약한 측면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태도가 가치와는 구별되는 보다 일회적이고 가변적인 표면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다만 기존문헌들의 정의들을 정리하여, 가치관은 개인의 개별적인 속성이, 개인이 처해있는 복합적인 사회망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건과 결합하여 형성되고 완만하나마 끊임없이 수정되는 어떤 관점이라고 말해 두기로 한다. 그리고 의식은 이러한 가치관이 구체적인 현실문제와 연관되어 응답하는 개인의 즉시적 형태의 사고라고 본다. 이 연구 속에서는 의식과 가치관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농촌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맥락에서 다를 예정이다.

* 태도척도(attitude scale)를 통해 가치관을 측정한 연구로는 金瓊東(1964), 尹熿燮(1971) 등이 있다.

2. 기존문헌의 검토

60년대 이후 농촌사회의 급변 속에서 농촌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 문헌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런데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체계적이고 동태적으로 살펴보는 문헌은 많지 않다. 기존의 문헌들은 대개 농촌주민들의 對 국가, 사회, 경제, 종교, 가족관 등을 정태적으로 살펴보고 특정정책의 실시가 주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들이 많았다.

여기서는 농촌주민들의 의식을 조사연구한 문헌들을 년대별로 주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70년대 이전

高永復(1965)은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공동체, 지리적으로 낮은 이동성, 인구의 희소성 등이 농촌인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짓는 농촌지역의 세가지 특성이라고 하고 이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농민의 퍼스널리티와 사회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로는 농민의 사회적 성격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유일한 생산수단이자 농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는 토지에의 애착심이 그것이다. 둘째, 농촌의 가족은 농민에 있어 직장이고 동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생활의 바탕을 가족에 둠으로써 생겨나는 가족중심주의가 있다. 셋째, 기존질서에 반항하지 않고 관습을 중시하며 권위에 맹종하는 전통적 성격이 있다. 넷째, 자연의 위협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그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길로서 미신이나 속신에 운명을 의지하는 미신적 성격이다. 그는 이러한 성격이 농촌인의 이념형적인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틀에 입각한 경험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金瓊東(1965)은 농촌인이 지니는 가치관을 당시까지 있어온 연구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가치지향으로 열거하였다. 첫째,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비합리와 전통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전통주의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에는 유교적 가치관과 비합리적, 관습적 판단, 그리고 福에 대한 전통적 관념, 농업의 天職의식 등이 포함된다. 둘째, 남녀관계와 부자, 장유노소관계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가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근대적 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한 평등한 관계의 확산에 따라 곧

없어져야 하는 전통적 신분관계의 잔존이다. 세째, 교육에 대한 중시이다. 네째는 가족이 중시되고 혈연에 의한 집단이 상당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가 포함된다. 다섯째, 경제적 財富의 중시이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지향이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농촌사회의 가치관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 또는 안정된 상태를 동경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된 가치지향들은 각각이 동일한 추상화수준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분석틀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기존문헌의 검토를 통해 농촌인의 몇가지 특성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식, 가치관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어 오고 있는 洪承稷(1969)의 저서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민과 기업인, 교수 및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사의 방법은 분야를 가족, 경제, 정치, 사회, 종교로 나누고, 각 가치관 내에서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관점들을 나열하여 질문항목으로 작성,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응답자의 전통성, 비전통성의 차원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각 개인층에 따라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것들은 조사대상별로 상호 비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치관의 평면적인 통계치의 서술과 비교에 그치고 있다. 즉 각 질문들이 서로 연계되어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문항별로 전통성, 비전통성의 총체적인 수준을 나타내어주는 지표를 만들지 않았다. 결국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의 단순한 서술이며, 조사대상자들의 가치관의 역동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70년대

70년대의 농촌은 대량의 향도이촌과 근대화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이 빚어낸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따라서 의식, 가치관 연구도 농촌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문제지향적 성격을 갖는 것들이 많았으며, 연구방법도 주민조사를 통한 경험적 분석이 많이 사용되었다.

崔弘基(1971)는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도시-농촌이라는 두 사회부분의 근대적인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반적인 근대성 점수(General Modernity Score)를 산정하여 농촌인의 태도를 도시인의 태도와 비교하여 보고 있다. 즉 태도의 차이성을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을 도시적, 산업적 및 교육적인 영향력을 구분하고, 각 문항을 척도화하여 반응에 따른 점수를 산정, 집단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집단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거주지역(도시 농촌), 직업(공업, 농업)별로 근대성 가치관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떤 변수가 더 큰 효과를 갖느냐를 추구하는 제한된 목표를 갖는 연구이었다.

尹燿燮(1971)의 연구는 농민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태도척도를 구성하고, 그 척도와 선정된 사회경제적인 제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농민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 태도척도 8가지를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점수에 따라 전통적 태도의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한 뒤 각각이 응답자의 연령, 교육, 경지면적, 사회참여정도, 직업, 대중매체와의 접촉, 軍 경험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으로는 농민의 과학적, 합리적 태도, 가치관을 보유하기 위해 농민의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 태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체계를 결여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金大煥(1976)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속에는 ①전통을 중시하는 과거지향성과 비과학적이고도 비합리적인 판단기준에서 관습을 존중하는 전통주의, ② 개인보다 가족이나 촌락 등 소단위 지역권을 중시하는 봉쇄성이 강한 파벌주의, ③ 개인중심의 업적주의보다 귀속적, 혈연적인 가족중심주의, 그리고 ④ 과학교육보다 전통과 인습을 중시하는 敎學主義 등 전근대적인 의식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그의 논의는 결국 이와 같은 전근대적 의식의 근대적 의식으로의 지양을 의도하는 것인 바 경험적 차원의 분석은 아니었다.

崔在錫(1976)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가족주의, 감투지향의식, 상하서열의식, 親疏구별의식, 공동체 지향의식 등 5가지를 들고 있으나, 일반적인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韓哲雄(1978)의 논문에서는 한국농민의 의식구조를 농민들의 가족관, 사회관, 경제관, 농촌개발관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견 조사의 수준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역시 체계적인 분석틀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 80년대

黃仁政(1980)은 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농촌가치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마을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는 비교·분석을 위한 틀로서, 기본적態度群인 변동지향성과 미래지향성, 성취동기, 계획성과 합리성을 나누고, 실제행동 및 부

락의 사회, 문화적 구조와 관련된 태도유형으로서의 농민태도를 실제조사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 태도유형에는 농민들의 농업관, 이웃간의 연대성, 이웃마을간의 연대성, 마을 일 참여도, 부녀자 청소년의 역할 평가, 공무원에 대한 태도,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 능력, 화폐에 대한 관념 등이 속해있고, 이에 대한 농민태도를 마을별로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도 새마을운동이 마을단위에서 농민들의 태도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는 목적지향적 조사였고, 그 자신도 지적하듯 縱斷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차이가 난다고 여겨지는 마을간의 횡적 비교에 머물렀다.

鄭址雄(1984)은 문화가 그 문화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의식구조를 갖도록 영향을 준다고 하고, 농촌인의 의식구조를 발전을 지향하는 의식구조와 발전을 저해하여 개선을 요하는 의식구조로 나누어 보고 있다. 발전지향적 의식구조는 ① 자연의 이치(순리)를 숭상하는 마음, ② 정직성, ③ 온고지신의 생활태도, ④ 풍부한 감정, ⑤ 겸손의 미덕, ⑥ 근면성, ⑦ 겸손한 생활관, ⑧ 강한 협동 의식 등이며, 반대로 발전을 저해하는 의식구조는 ①宿命론적 생활관, ② 개인의 능력보다 다른 힘에 대한 의뢰심, ③ 희박한 시간관념, ④ 모험심의 결여, ⑤ 남아선호관념, ⑥ 지나친 가족주의(nepotism)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분된 의식구조는 경험적 조사나 문헌연구에 의한 개념들은 아니었다.

金一鐵(1985)은 시대별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농민의 가치관을 연계해 보고 있는데 농촌사회가 지난 20년간 인구감소와 도시화 등 구조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민의 가치관도 탈농과 좌절심리 등의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 근대적 가치관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즉 60년대 이후 가치관, 의식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어 70년대의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의 기초가 다져지면서 가치관도 본격적으로 전환되었는바 80년대에 들어와 약간씩 진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의 혼란도 감소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민가치관 변화의 거시적, 구조적 설명이므로 특별한 실증적 분석은 제공되지 않았다.

라. 기존문헌의 비판적 검토

이제까지 소개한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식, 가치관 조사·연구들을 보면 60~70년대의 연구들은 주로 당시의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근대화 과정속에서 농민의 이른바 ‘전통적, 미신적’ 의식은 어떻게 ‘근대시민의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라

고 하는 계몽(enlightenment)적 가치판단하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특히 60년대말 이후 농촌지도사업의 확산과 농촌새마을 운동, 농촌가족계획 등의 정책사업의 대대적인 실시는 그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농촌사회조사의 실용성은 더욱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조사·연구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정책사업의 효율적 침투를 위하여 대개 농촌인들에 대한 (근대식) 교육의 확대, 보급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았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와 보다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완전하게 포섭된 농촌사회의 주민들이 이른바 “사양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상업화시키고, 인구의 과소화로 빚어지는 노동력 부족, 질적 저하 및 활력의 상실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과제에 봉착하면서 그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의 측면에서 농촌주민들의 의식을 연구한 업적들이 보이고 있다.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의 가치체계를 직관적으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조사항목을 만들거나, 가치체계의 설정없이 인식대상에 대한 관점(국가관, 사회관, 종교관 등)이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정태적, 관념적, 비체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들이 많으며, 따라서 결과분석도 주로 記述的이었다.

따라서 21세기로의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의식, 가치상의 변화의 측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부터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고 그에 입각한 체계적, 동태적인 분석·연구가 이 시점에서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4 장

조 사 설 계

1. 조사분석의 틀

가. 분석틀 구성의 절차

이 연구에서는 1985년도 조사설계를 대폭 수정하여 보다 이 연구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석틀을 새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항목을 만들어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틀 구성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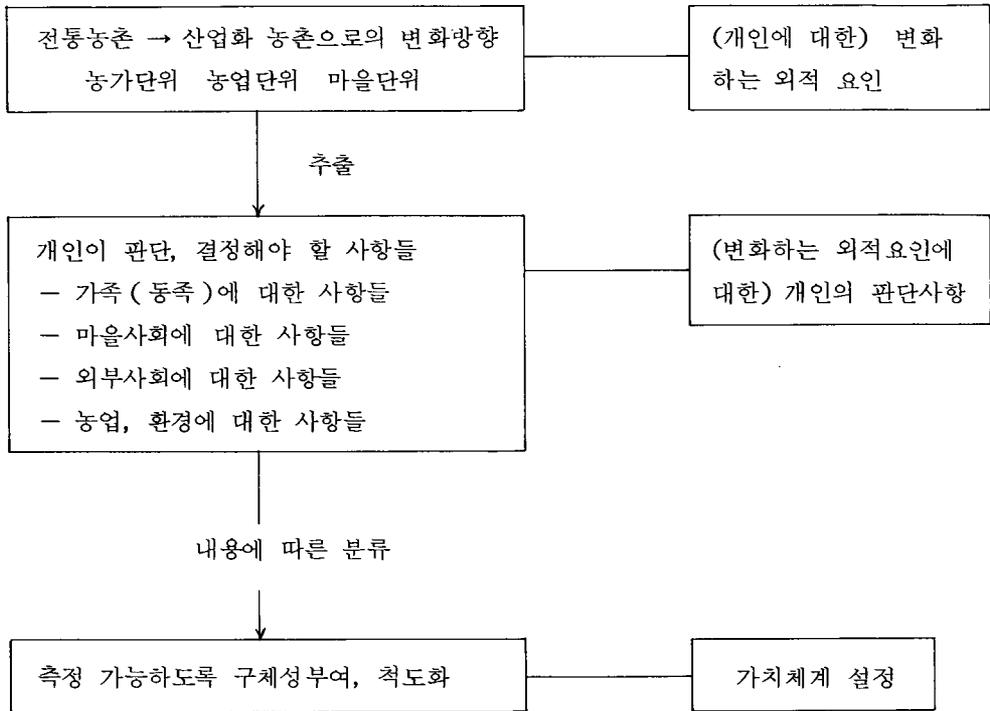
전통농촌의 농가, 농업, 마을사회가 산업화된 농촌의 농가, 농업, 마을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 대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에서 농어촌주민들이 판단,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추출한다. 이것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동족)과 마을사회, 외부사회, 농업환경 등과 같은 인식대상(objects)에 대해 개인이 판단, 행위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 판단, 행위사항들은 달리 말하면 위의 변화하는 외적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판단사항인 것이다.

그러한 판단, 행위의 사항들은 실증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성을 부여하고 척도화 하며, 이것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개념화한 것이 바로 가치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틀 구성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분석틀 구성의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농촌사회경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서 볼 수 있는 농가와 농업, 마을은 각

그림 4 - 1 분석틀 구성의 절차



각 전통적인 농가와 농업, 마을의 형태에서 산업화된 농가, 농업, 마을의 형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수 많은 사항들에 부딪힌다.

우선 농가의 차원에서 보면, 가족내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3세대형 직계 가족이 분산화되면서 가장의 대표권과 권위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가족내의 의사결정 양상도 가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 아울러 家의 계승에 대한 관념도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家業으로서의 농업을 자녀에게 계승하여야 할 것인가가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판단사항으로 대두된다.

농업은 문순답작농업이 중심이었던 이념형적 영농방식이 미백농업의 해체와 상업적 농업이 확대되면서 인력중심의 낮은 기술수준의 기계화를 비롯한 기술변혁을 겪는다. 그리고 임대차 농업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경영형태가 보급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농촌주민은 농업에의 자본투자를 지속하여 확대재생산을 지향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이제는 단순한 하나의 생산수단, 재산으로 보게 되며, 그리고 생산량이 적더라도 생태계와 조화된 농업을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인가도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업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오던 것처럼 과연 국가의 근본인가, 농업에 종사하는 나에게 농업은 과연 천직인가라고 하는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천직의식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많이 약화되고 새로운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전통적인 마을사회 역시 산업화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개방화되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겪게 된다. 혈연공동체로서의 마을의 의미가 퇴화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유대감과 배타의식도 약화된다. 마을의 권력구조와 리더십 구조도 몇몇 마을유지들로부터 벗어나 기능적으로 다원화된 지도자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공동자원의 의의가 감소되며, 공동체규범은 위축되고 민속문화에 대한 의식도 약화된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농촌주민들은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게 된다. 가문과 동족은 나 또는 나의 가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라는, 전통적인 가문, 동족에 대한 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 마을이라고 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개방화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배타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농촌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의 개방화가 진척될 것이다. 마을내의 공동재산에 대한 유용성도 再考하게 되고 마을공동체의 규범이 성문화된 근대적 규범과 근대적 제도에 의해 대체되어 가는 것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마을내 의사결정은 몇 사람의 유지에 의한 과도적 절차가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식도 많이 퍼지게 된다. 이 밖에 이웃간에 서로 돕는다고 하는 사회보장의식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그 양상을 달리 할 것으로 보이며, 명절때에 하는 민속놀이와 같은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고, 민간신앙에 대한 신뢰 역시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외에 농가와 농업, 마을사회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되지만 농촌주민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에는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중요한 사고방식들이 있다. 삼강오륜이라든가 관존민비, 그리고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고 따지는 것 따위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것들도 산업화 속에서 어떤 것은 사라지거나 혹은 그 중요성이 약화되는 변화를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가치관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나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농촌주민들은 농가(가족), 농업, 마을사회 차원에서 새로이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많은 것들을 새로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과 결정은 개인의 속성과 주위의 사회적인 변화들을 나름대로 결합하여 개인의 독자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 결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판단과 결정의 방향은 어떠한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 봄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2〉는 이와 같은 농가와 농업, 마을사회의 변화의 방향에 따라 농촌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인식의 대상이란, 인식과 행위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전제할 때 그러한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분석들에서는 개인을 바로 에워싸고 있는 가족 혹은 동족이라고 하는 인식대상과, 공간적으로는 마을사회와 보다 넓은 외부사회 그리고 농업 혹은 환경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인식대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인식대상을 밝히는 이유는, 개인의 가치관을 실제 조사에서 파악하려면 개인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인식의 대상을 일단 상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문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 가치체계의 구성

위에서 정리한 개인의 인식대상에 따른 판단, 결정해야 할 사항들은 몇가지의 분류범주로 묶여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범주를 가치체계라 부르고 그것들을 각기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권위주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민속주의 그리고 농본주의의 다섯개로 부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판단사항들은 가치의 측정을 위한 목적에 따라 그 추상성에서 벗어나 조작적으로 정의될 (operationally defined)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가치체계의 뜻을 설명하고, 그에 포함된 판단사항들과 그것들의 조작적 정의를 언급하기로 한다.

1] 권위주의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유교적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치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金瓊東, 1965 : 261). 유교에서 규정하는 남녀관계, 부자관계, 장유관계 등은 모두 권위에 입각하여 불평등한 상하, 주종

변화의 방향	판단, 결정해야할 사항들	인식의 대상	
<p><농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형 직계가족 ○ F-cycle 가족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의 대표권, 권위 ○ 가족내의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집안내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p>가족 / 동족 가족 / 동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의 계승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의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 하나 	<p>가족 / 동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가족의 형성과 핵가족화 ○ F-cycle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농업) 계승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손, 장남은 그 일가나 가족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가 ○ 농업은 자식의 대에서도 반드시 지어야 하나 	<p>가족 / 동족 농업 / 환경</p>
<p><농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순 답작농업중심 ○ 인력중심 낮은기술 ○ 단순 재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의 자본투자 ○ 기술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상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 ○ 새로운 영농기술을 적극 수용할 것인가 	<p>농업 / 환경 농업 /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백위주의 작목선택을 계속할 것인가 	<p>농업 /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백농업의 해체와 상업적농업의 확대 ○ 기계화, 비닐하우스 등 기술변화와 자본재투자 ○ 임대차농업의 확대와 새로운 경영형태의 도입 ○ 순환농업질서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직업의식 ○ 토지의 재산관념 ○ 생태환경을 고려한 농업 또는 약탈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은 천직인가 ○ 농업은 국가의 근본, 천하지대본인가 ○ 토지는 절대로 사고 팔아서 안되며 토지만이 유일한 재산인가 ○ 농업의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약, 비료, 제초제를 많이 써도 괜찮은가 	<p>농업 / 환경 농업 / 환경 농업 / 환경 농업 / 환경</p>

그림 4 - 2 (계속)

변화의 방향	판단, 결정해야 할 사항들	인식의 대상
<p><마 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 및 지역공동체 ○ 인구과잉과 잠재실업 ○ 지주 - 소작의 계급구조 ○ 노동력, 자원의 공동이용 ○ 권의적, 통합적 기능의 지도자 ○ 자연적 의지에 의한 경제사회 협동 ○ 공동체 질서유지와 규범 ○ 민속문화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문, 동족과 나의 관계 ○ 공동체의식, 애착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榮辱을 가문의 그것으로 생각하는가 가족 / 동족 ○ 나의 친족, 동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가족 / 동족 ○ 조상의 시제나 제사에 꼭 참석하는 것이 도리인가 가족 / 동족 ○ 이웃보다 동족에 대해 유대감을 가지는가 가족 / 동족 ○ 외부인이 들어와 살면 우리 마을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마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확대와 개방화 ○ 인구의 노령화, 동질성의 감소 ○ 계급, 권력구조의 변화 ○ 공동자원의 이용축소, 의의 감소 ○ 기능적으로 다원화된 지도자 ○ 선택적 의지에 의한 유기적 협동 ○ 공동체 규범 및 전통적 규범의 변화, 약화 ○ 민속문화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자원, 재산의 유용성 ○ 마을내 의사결정과 마을지도자의 권위 ○ 공동체 규범의 준수 ○ 사회보장의식 ○ 민속문화의 신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대로 살아온 우리 마을에 얼마나 애착심이 있는가 마 을 ○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공동토지 같은 것이 마을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가 마 을 ○ 마을의 중요한 결정들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마 을 ○ 마을에서 하는 공동활동에 이 마을 주민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가 마 을 ○ 가난한 이웃을 마을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하는가 마 을 ○ 동제 등 마을공동신앙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에 영향을 주는가 마 을 ○ 마을공동놀이나 행사들은 주민간의 협동, 유대를 위해 꼭 필요한가 마 을

그림 4 - 2 (계속)

변화의 방향	판단, 결정해야 할 사항들	인식의 대상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83 242 1121 267">○ 풍수사상을 믿는가 <li data-bbox="883 310 1327 336">○ 자연재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li data-bbox="883 378 1390 443">○ 官이나 官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li data-bbox="883 485 1390 549">○ 나이든 사람에게 무조건 공손히 대해야 하는가 <li data-bbox="883 592 1265 618">○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못한가 <li data-bbox="883 660 1306 686">○ 양반과 상민 등 신분의식은 있는가 	<p data-bbox="1462 248 1596 274">농업 / 환경</p> <p data-bbox="1462 316 1596 342">농업 / 환경</p> <p data-bbox="1462 385 1596 410">외 부 사 회</p> <p data-bbox="1462 485 1596 511">외 부 사 회</p> <p data-bbox="1462 592 1596 618">외 부 사 회</p> <p data-bbox="1462 660 1596 686">외 부 사 회</p>

관계로 설정된 것들이다. 이로부터 많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이 제한받게 된다. 이 권위주의 가치에 분류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여기서 모두 7가지로 정리되었고, < 표 4 - 1 >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 1 권위주의와 조작적 정의

판 단 사 항	조 작 적 정 의
1. 가정의 가족통합	가족원은 가정의 의견에 무조건 따른다.
2. 가의 승계중시와 장손우대	집안의 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잇는다. 장남, 종손은 각별한 대우를 받는다.
3. 마을유지의 마을사회 통할	마을내 주요문제는 몇몇 통합적 기능의 지도자가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한다.
4. 관준민비의식	관청에 가면 그 직원들의 지시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
5. 장유유서의의식	나이든 사람에게는 무조건 존경을 보내야 한다.
6. 남녀유별의의식	여자는 남자와 평등할 수 없다.
7. 반상구별의의식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어울려야 한다.

㉒ 가족주의

가족주의 (familism)는 “집단중에 가족이 중시된다는 것과 혈연에 의한 집단(동족집단)이 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치이다(金瓏東, 1965 : 263). 즉 사회의 구성단위로서의 집(家)이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개인은 이 집에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가 비단 한 가족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외의 외부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상태를 일컫는다(崔在錫, 1965 : 23).

가족주의의 결합원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孝(高永復, 1987 : 15)와 조상숭배가 그 핵심이며, 가족주의는 사회적으로는 대략 동족으로 이루어진 마을사회에서 질서의 유지와 전체 부락의 조직 균형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이다(金漢九, 1982 : 10 - 11).

가족주의의 가치에 포함된 사항들과 그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 - 2 > 참조).

표 4 - 2 가족주의와 조작적 정의

판 단 사 항	조 작 적 정 의
1. 가문의 중시	· 나의 영욕을 가문의 그것으로 생각한다.
2. 혈연유대의식	· 동족에 대해서는 보다 가까운 친밀감을 갖는다.
3. 조상숭배의 강조	· 조상에 대한 시제, 제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4. 확대된 친족범위의식	· 10촌까지도 친족이며 때로는 그 이상도 친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집단주의

이 연구에서의 집단주의 (collectivism)는 파벌이나 파당의 의미와는 달리 지역 공동체로서의 마을 사회에 대한 귀속의식, 소속감의 정도 및 일상생활에서의 집단참여에 대한 의식을 뜻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지리적 의미에서의 집단이기주의 (group egoism)를 가리킨다.

집단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판단사항들이 포함된다.

표 4 - 3 집단주의와 조작적 정의

판 단 사 항	조 작 적 정 의
1. 외지출신인에 대한 배타의식	· 외지출신인은 마을구성원으로 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
2. 우리마을 애착심	· 조상부터 살아온 우리마을에 애착을 갖는다.
3. 정주의식	·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예정이다
4. 집단규범 준수	· 마을질서 유지를 위한 집단규범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5. 마을공동재산의 유지	·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공동재산은 필요하다.
6. 상부상조, 협동중시	· 생활이 어렵거나 불우한 이웃은 마을전체가 돕고 산다.
7. 공동체놀이 및 행사유지	· 마을단위로 하는 놀이, 행사가 주민간의 유대강화와 마을의식 형성에 기여한다.

④ 민속주의

민속주의(folk belief)란 민속적 사고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 민속이란 문명국가의 서민사회에 전승하는 잔존문화라고 할 수 있다.(李杜鉉, 1974 : 1 - 3).

한국에서의 민속은 농사와 더불어 시작된 농경의례, 농악 등의 농경문화와, 불교의 비독선적, 비배타적 성격, 그리고 유교의 철학이 혼합되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張壽根, 1980 : 10 - 14). 즉 민속주의는 그 토착적 성격과 외래적 성격이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민속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실현되면서 일상적인 삶이 배어들어 있으며,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林在海, 1986 : 67).

〈표 4 - 4〉는 민속주의에 포함되는 개인의 판단사항들이다.

표 4 - 4 민속주의와 조작적 정의

판 단 사 항	조 작 적 정 의
1. 마을공동신앙에 대한 믿음	· 동계 등 마을공동신앙이 갖는 의미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2. 풍수사상에 대한 믿음	· 묘자리와 집터를 잘 잡아야 집안이 흥한다는 것을 믿는다.
3. 자연재해에 대한 의경심	· 자연재해는 하늘이 내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⑤ 농본주의

농본주의(agrarianism)는 보통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본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약간 있는데, 버텔과 플린에 따르면 농본주의는 농업이 가장 자연스러운(natural) 것이고 바람직한 천직이며 농촌이야말로 거주하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F.H. Buttel & W.L. Flinn, 1976 : 473).

한국에서의 농본주의는 土農工商 혹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표현되는 대로 농업에 대한 긍지와 천직의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표 4 - 5 농본주의와 조작적 정의

판 단 사 항	조 작 적 정 의
1. 농업의 자긍심	•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모든 산업중 가장 중요하다.
2. 농업의 천직의식	• 농업은 나의 천직이다.
3. 농업의 계승	• 농업을 자식들에게도 계승하도록 한다
4. 농업에의 우선투자	• 농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업 자본투자가 최우선이다.
5. 토지에의 애착심	• 토지는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다.
6. 부의 척도로서의 토지	• 토지를 늘려나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7. 생태질서와 조화된 농업	• 땅의 지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농법을 사용한다.
8. 자급적 미맥위주 농업	• 자급을 위한 쌀 농사가 최우선이다.
9. 전통적 영농기술 고수	• 새로운 영농기술보다는 전통적 방식의 영농기술이 더 낫다고 본다.

그 밑바탕에는 토지에 대한 애착성이 있다. 즉 토지는 유일한 생산수단과 재산이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생활의 의뢰처인 것이다(高永復, 1965 : 241). 따라서 토지로 대표되는 농촌의 생태환경 그 자체에 대한 保全의식도 이 농본주의 가치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본주의에 포함된 판단사항들은 <표 4 - 5 >와 같다.

2. 조사문항의 구성

가. 조사문항의 작성

본 조사의 조사문항은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의 판단사항들로부터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문항은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의 문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부록의 조사표 참조). 확정된 문항은 총 38문항으로,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그 중 각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문항 32개(<표 4 - 6>에서 1부터 5까지)와, 의사결정형태를 조사하는 문항 1개(<표 4 - 6>에서 6. 기타의 I - 2) 등 모두 33개 문항

이다. 참고로 나머지 5개 문항은 농촌주민들의 자녀교육관과 대중매체 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당 연구원의 농정여론실에서의 조사의뢰에 의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본 조사의 실시

① 조사대상의 선정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연구가 사례마을로 선정하여 매년 조사해오고 있는 충남의 大田(舊 大德), 論山, 扶餘, 錦山の 4개 마을 주민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하였다.

첫째, 농가와 비농가 등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포함.

둘째, 20세~69세의 연령층(실제 조사에선 70세 이상의 경영주 2인 포함되었음) 셋째, 가구내 지위는 경영주(남, 여), 경영주의 처, 아들, 며느리로 하였음(실제 조사에서는 딸, 동생, 조카 등이 4인이 포함되었음).

넷째, 동일 가구내에 네 명이 다 있는 경우는 경영주의 처 제외하였음.

이상과 같은 원칙하에 각 가구별로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조사가 불가능할 것 같은 대상들(가령 정신질환자, 청각장애자 등)을 제외하여 조사대상자들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조사대상인원은 348명이었다.

표 4-6 조사표의 구성

구 분		문 항 번 호					문 항 수		
1.	권 위 주 의	I-1 IV-2	I-3 IV-3	I-4 IV-4	II-8	IV-1	8		
2.	가 족 주 의	I-5	I-6	I-7	I-8		4		
3.	집 단 주 의	II-1 II-6	II-2 II-7	II-3 II-10	II-4	II-5	8		
4.	민 속 주 의	II-9	III-10	III-11			3		
5.	농본 주의	전	체	III-1	III-4	III-7	III-8	III-9	5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III-2	III-3	III-5	III-6		4		
6.	기 타	I-2	V-1	V-2	VI-1	VI-2	VI-3	6	
계							38		

표 4 - 7 조사대상지역 및 인원

구 분	조 사 부 락	호 수	조사대상인원(A)	조사인원(B)	B/A (%)
근 교	대전직할시서구기성동평촌	58 호	92 명	78 명	84.8
평 야	충남논산군채운면야화 2리	52	104	89	85.6
중 간	충남부여군초촌면송국 2리	33	60	39	65.0
산 간	충남금산군남이면대양 2리	50	92	67	72.8
계	4 개	193	348	273	78.4

② 조사의 실시와 조사방법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사문항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89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서 총 1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장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89년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근교마을과 산간마을, 평야마을과 중간마을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로 하였고, 국문을 충분히 독해하고 질문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피조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기입방식(self-administered method)을 채택하여, 1차 방문시 조사표를 배포하고 나중에 재방문, 회수함으로써 조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다. 조사결과의 분석방법

① 문항별 빈도수 분석

각 문항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교차표는 그 관계의 유무를 알기 위해 통상 사용되는 카이제곱(chi-square,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모두 5%로 하여 판단하였다.

빈도수 분석의 χ^2 검정에 있어 각 칸(cell)의 기대도수가 5이하인 것이 전체 칸의 25%이상이어서 χ^2 검정이 타당한 검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외하고 교차표를 작성하였고, '모르겠다'의 응답을 제외 하더라도 각 칸의 기대도수가 5이하인 것이 전체 칸의 25% 이상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모르

겠다'를 제외한 교차표를 작성, 제시하였다.

② 지 수 화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가치별로 합산하여 개인별 가치지수(index)를 작성하였다. 점수부여는 임의지수 구성법(arbitrary index construction)을 사용하여, 가령 권위주의에 해당하는 설문의 질문문항에서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선택지에 응답한 경우 -2점, 비권위주의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선택지에 응답한 경우에는 2점, '모르겠다'나 무응답인 경우는 0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선택지가 4개 혹은 5개인 문항의 경우에는 1이나 -1 혹은 3, -3점 등을 적절히 부여하였다. 근대적 가치관, 의식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쪽 점수를, 전통적 가치관, 의식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쪽 점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합산된 점수, 즉 지수가 높을 수록 그 가치지향이 근대적 의식지향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각 가치지수를 작성함으로써 응답자 개인의 가치관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갖는 위치를 한 눈에 알 수 있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치지수의 집단간 비교분석 및 종단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표 4-8〉은 각 가치별로 지수화했을 때 그 지수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8 가치지수의 범위

가 치	문 항 수	지 수 범 위
권 위 주 의	8	-16 , 16
가 족 주 의	4	- 9 , 8
집 단 주 의	8	-16 , 16
민 속 주 의	3	- 6 , 6
농 본 주 의*	9	-18 , 18
농 본 주 의**	5	-10 , 10

* 농업종사자, 농업+비농업종사자

** 비농업 종사자, 무직자

제 5 장

1989 조사결과와의 분석

1.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들의 일반현황을 마을별로 살펴보면 < 표 5-1 >과 같다. 경영주와 처의 응답자는 전체의 82.4%이다. 학력별로 보면 무학과 국졸(퇴)이 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업종사자가 가장 많고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을 포함한 무직자는 12.5%이다. 연령층으로 보면 20대가 약간 적고 나머지 층은 20%를 약간 넘어 고른 분포를 보인다. 경작 면적별로는 1.5~2.0ha계층의 비율이 가장 적은 편이고 0.5~1.0ha계층의 비율은 가장 높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다.

2. 조사결과 분석

가. 문항별 빈도수 분석

①가장의 의견존중

집안의 家長과 가족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가장의 의견에 어떻게 따라야 할 것

표 5 - 1 응답자 일반현황

구 분		근 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지 위	경 영 주(남)	39.7	44.9	43.6	40.3	42.1
	경 영 주(여)	5.1	5.6	10.3	6.0	6.2
	처	37.2	37.1	38.5	23.9	34.1
	아 들	10.3	7.9	2.6	20.9	11.0
	며 느 리	5.1	4.5	-	9.0	5.1
	기 타*	2.6	-	5.1	-	1.5
학 력	무	26.9	21.4	31.6	34.3	27.6
	국 출(퇴)	48.7	49.4	36.8	41.8	45.6
	중 출(퇴)	6.4	11.2	13.2	13.4	10.7
	고 출(퇴)	14.1	14.6	18.4	10.5	14.0
	대 출(퇴)	3.9	3.4	-	-	2.2
학 력	농 업	62.8	68.5	92.1	83.6	73.9
	농업+비농업	9.0	7.9	5.3	6.0	7.4
	비 농 업	11.5	7.9	2.6	-	6.3
	무 직	16.7	15.7	-	10.5	12.5
연 령	20 대	10.3	7.9	10.5	20.9	12.1
	30 대	25.6	16.9	15.8	20.9	20.2
	40 대	14.1	23.6	31.6	16.4	20.2
	50 대	26.9	24.7	31.6	17.9	24.6
	60대이상	23.1	27.0	10.5	23.9	22.8
경 작 면 적	무 경 작	30.8	25.8	2.6	11.9	20.6
	0-0.5 ha	12.8	19.1	10.5	14.9	15.1
	0.5-1 ha	39.7	20.2	10.5	28.4	26.5
	1-1.5 ha	11.5	9.0	26.3	28.4	16.9
	1.5-2 ha	5.1	9.0	13.2	14.9	9.9
	2 ha이상	-	16.9	36.8	1.5	11.0
성	남	51.3	51.7	50.0	61.2	53.7
	여	48.7	48.3	50.0	38.8	46.3

* 딸 1, 동생 2, 조카 1

N=273

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약 68%가 가장의 생각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 >를 보면 연령에 따라, 즉 젊은 사람일 수록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나,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장의 의견도 그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더욱 확산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1985 기준년도에 실시했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의 이와 유사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 61%가 가장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바, 금번의 조사 68%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젊은 층일 수록 부정적이어서, 이도 금번조사의 연령에 따른 경향과 유사

표 5-2 가장의 의견존중

					%
구	분	가장에게 무조건 복종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계	
연령별	20 대	3.7	96.3	100.0	N = 249 $x^2 = 14.298$ $df = 4$ $x^2 > x^{20.05}$
	30 대	29.2	70.8	100.0	
	40 대	35.2	64.8	100.0	
	50 대	32.8	67.2	100.0	
	60 대 이상	44.1	55.9	100.0	
	계	32.1	67.9	100.0	

표 5-3 연령별 가장의 권위

<문 :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설사 아버지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듣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다>

					명 (%)
	그 령 다	아 니 다	모르겠다. 무응답	계	
70 +	2 (66.7)		1 (33.3)	3 (100.0)	
60 - 69	15 (42.9)	19 (54.3)	1 (2.9)	35 (100.0)	
50 - 59	11 (40.7)	13 (48.1)	3 (11.1)	27 (100.0)	
40 - 49	10 (28.6)	23 (65.7)	2 (5.7)	35 (100.0)	
30 - 39	3 (15.0)	16 (80.0)	1 (5.0)	20 (100.0)	
20 - 29	1 (11.1)	7 (77.8)	1 (11.1)	9 (100.0)	
계	42 (32.6)	78 (60.5)	9 (7.0)	129 (100.0)	

출처 : 吳乃元, 金鍾埰, 崔洋夫(1986), 95 쪽.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이 항목에 있어서는 3년전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가구원 내 의사결정방식

농촌가구 단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事案들에 대하여 가구원끼리 어떻게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가를 살펴보았다. < 표 5 - 4 > 를 보면, 농토판매나 직업, 직장을 바꾸는 문제 (비농업종사자의 경우)와 자녀교육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위주로 부인과 상의한다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부업용품에 대해서는 부인 위주로 남편과 상의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내구소비재 (칼라 TV, 냉장고 등) 구입의 경우도 부인 위주 남편상의를 가장 높으나 남편 위주 부인상의를의 비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의원, 조합장의 투표와 같은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남편 혼자, 남편 위주 부인상의를의 남편 우위형이 가장 빈번한 의사결정형태이며, 기타의 경우 (각자 알아서 한다)는 14%정도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事案에 따라서 약간 다르나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의사결정하는 부부상의회 (民主型)의 유형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농촌에서의 가부장적 의사결정 형태가 농촌노동력의 부녀화 등 농촌부녀자의 역할증대에 따라 부부상의회로 점차 이동해 온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면담과정에서 특별히 느낄 수 있었던 사항은 젊은 영농후계자 부부와 같이 사는 노년층의 경영주의 경우 결정권은 이들 후계자층으로 이동하여, 아들 또는 며느리와 상의하거나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의사결정권의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1985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항목이 있었는데, 농토매매에 있어서는 71%가 부부상의회로 한다고 하여 금번 조사 (72.4%)와 비슷하나, 대개 남편이 한다는 비율은 금번 조사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자녀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81%가 부부합의라고 하여 금번 조사의 83.0%와 비슷하며, 대개 남편, 대개 부인이 한다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가구구입 (내구소비재)에 있어서 부부합의가 66%에서 78%로 증가하였고, 남편, 부인 혼자 한다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 대체로 3년전과 비교해 볼 때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남편이나 부인이 혼자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5 - 4 가구내 의사결정

%

구	분	남편이 혼자	남편위주 부인상의	부인위주 남편상의	부인이 혼자	가족 전원	기타	계	비고
농토판매, 구매 또는 직업, 직장 이동	근교	3.6	64.3	-	-	28.6	3.6	100.0	N = 105 $x^2 > x^2 0.05$
	평야	5.0	77.5	-	-	17.5	-	100.0	
	중간	13.3	73.3	13.3	-	-	-	100.0	
	산간	-	63.6	-	-	27.3	9.1	100.0	
	계	4.8	70.5	1.9	-	20.0	2.9	100.0	
자녀 교육문제	근교	-	73.1	11.5	-	11.5	3.9	100.0	N = 103 $x^2 < x^2 0.05$
	평야	2.5	50.0	37.5	-	5.0	5.0	100.0	
	중간	-	60.0	20.0	-	20.0	-	100.0	
	산간	-	77.3	-	-	13.6	9.1	100.0	
	계	1.0	63.1	20.4	-	10.7	4.9	100.0	
부일용품 구입	근교	-	3.6	75.0	21.4	-	-	100.0	N = 105 $x^2 < x^2 0.05$
	평야	2.5	10.0	65.0	17.5	5.0	-	100.0	
	중간	6.7	20.0	66.7	6.7	-	-	100.0	
	산간	-	18.2	45.5	18.2	9.1	9.1	100.0	
	계	1.9	11.4	63.8	17.1	3.8	1.9	100.0	
내구소비재 구입	근교	-	25.0	57.1	10.7	3.6	3.6	100.0	N = 105 $x^2 < x^2 0.05$
	평야	2.5	50.0	27.5	5.0	12.5	2.5	100.0	
	중간	6.7	26.7	66.7	-	-	-	100.0	
	산간	-	36.4	27.3	4.6	18.2	13.6	100.0	
	계	1.9	37.1	41.0	5.7	9.5	4.8	100.0	
국회의원 조합장 투표	근교	17.9	53.6	-	3.6	7.1	17.9	100.0	N = 103 $x^2 < x^2 0.05$
	평야	59.0	23.1	-	2.6	5.1	10.3	100.0	
	중간	33.3	40.0	-	-	6.7	20.0	100.0	
	산간	33.3	52.4	-	-	4.8	9.5	100.0	
	계	38.8	39.8	-	1.9	5.8	13.6	100.0	

표 5 - 5 가족내의 의사결정(1)

〈문 : 농토를 사고 팔 때 내외분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명

응답	근교	평야	중간	산간	계
대개 남편이	3	9	6	3	21
대개 부인이	1				1
부부가 합의해서	15	18	14	18	65
시부모		1			1
기타	1	1		1	3
계	20	29	20	22	91

출처 : 〈표 5 - 3〉과 같음.

표 5 - 6 가족내의 의사결정(2)

〈문 :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일이 생겼을 때 내외분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명

응답	근교	평야	중간	산간	계
대개 남편이		5	2	3	10
대개 부인이	3	1	2		6
부부가 합의해서	22	23	17	20	82
시부모					
기타	1	1	1		3
계	26	30	22	23	101

출처 : 〈표 5 - 3〉과 같음.

표 5 - 7 가족내의 의사결정(3)

〈문 : 새로운 가구를 살 때 내외분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명

응답	근교	평야	중간	산간	계
대개 남편이		2	1	1	4
대개 부인이	8	9	6	3	26
부부가 합의해서	15	19	14	17	65
시부모	1				1
기타	1	1		1	3
계	25	31	21	22	99

출처 : 〈표 5 - 3〉과 같음.

③ 家の 승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아들로 집안의 代를 이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고, 이는 특히 농촌주민들에게 있어 강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장남이 아니라도 아들을 낳아 자신의 代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표 5-8>에서 보면, 代를 꼭 이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넘는 수준으로서,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들을 통한 家の 승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학력별 또는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본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의식상태라고 보여진다.

표 5-8 家の 승계

%				
구 분	대는 꼭 이어야	꼭 잇지 않아도 된다	계	
무 학	78.3	21.7	100.0	N = 250 $\chi^2 = 2.617$ df = 4 $\chi^2 < \chi^2_{0.05}$
국 졸 (퇴)	67.5	32.5	100.0	
중 졸 (퇴)	69.6	30.4	100.0	
고 졸 (퇴)	68.6	31.4	100.0	
대 졸 (퇴)	66.7	33.3	100.0	
계	70.8	29.2	100.0	
20 대	67.9	32.1	100.0	N = 250 $\chi^2 = 8.039$ df = 4 $\chi^2 < \chi^2_{0.05}$
30 대	57.8	42.2	100.0	
40 대	65.4	34.6	100.0	
50 대	78.5	21.5	100.0	
60대이상	78.3	21.7	100.0	
계	70.8	29.2	100.0	

④ 장남, 증손의 우대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집안의 代를 잇는 장남, 증손에 대해서는 재산을 많이 상속한다든가 代를 잇는 이들의 동족(가족)내 위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우대를 하여 왔다. <표 5-9>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거의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들에 대한 우대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53~58%, 50대 이상의 경우 80

% 이상이 장남, 종손우대에 찬성함으로써 연령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학력 수준의 차이보다는 연령의 차이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 9 장남, 종손의 우대

구 분		우대 받아야	우대받지 않아도 된다	계	%
학 령 별	무 학	71.2	28.8	100.0	N = 256 $x^2 = 2.631$ $df = 4$ $x^2 < x^2_{0.05}$
	국 졸 (퇴)	70.7	29.3	100.0	
	중 졸 (퇴)	58.3	41.7	100.0	
	고 졸 (퇴)	67.6	32.4	100.0	
	대 졸 (퇴)	50.0	50.0	100.0	
	계	68.8	31.3	100.0	
연 령 별	20 대	53.3	46.7	100.0	N = 256 $x^2 = 19.808$ $df = 4$ $x^2 > x^2_{0.05}$
	30 대	57.8	42.2	100.0	
	40 대	56.4	43.6	100.0	
	50 대	80.3	19.7	100.0	
	60대이상	83.3	16.7	100.0	
	계	68.8	31.2	100.0	

5 가문에 대한 의식

가족주의의 주된 가치는 가족 혹은 동족에 매몰된 개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동족을 포괄하는 가문에 대하여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개인의 榮辱을 가문의 그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표 5 - 10>를 보면, 일단은 내가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보다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가문을 옥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4%). 여기서도 학력별로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반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대의 경우와 30대 이상의 경우가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의 성취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20대의 경우는 개인의 성공을 가문의 그것에 우선시하고 있으나, 30대 이후의 보다 나이든 계층에서는 가문에 대한 중요성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10 가문에 대한 인식

구 분		가문 우선시	개인 우선시	계	%
학 력 별	무 학	81.5	18.5	100.0	N = 249 $x^2 = 2.167$ $df = 4$ $x^2 < x^2 0.05$
	국 졸 (퇴)	85.3	14.7	100.0	
	중 졸 (퇴)	80.0	20.0	100.0	
	고 졸 (퇴)	86.5	13.5	100.0	
	대 졸 (퇴)	66.7	33.3	100.0	
	계	83.5	16.5	100.0	
연 령 별	20 대	63.3	36.7	100.0	N = 249 $x^2 = 10.742$ $df = 4$ $x^2 > x^2 0.05$
	30 대	87.2	12.8	100.0	
	40 대	84.3	15.7	100.0	
	50 대	88.9	11.1	100.0	
	60대이상	84.5	15.5	100.0	
	계	83.5	16.5	100.0	

6 친족의 범위

농촌주민의식의 개방화에 따라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범위도 점차 축소되려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전통농촌에서의 이념형적 형태인 동족부락이 이촌과 가족제도의 변화로 그 결합력이 약화되면서, 친족의 범위는 보다 가까운 촌수로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전망된다.

<표 5 - 11>에서 보면 8촌 이하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44.4%에 이르고 있고 4촌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도 8.6%가 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마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동족부락인 근교마을은 평균응답수준이고 동족부락적 성격이 희박하고 도시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평야마을은 8촌 이하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간마을과 산간마을의 경우는 오히려 8촌 이하의 응답자가 평균수준보다 낮은 반면, 10촌 이상의 범위도 친족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보다 높아 40%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간, 산간마을에서 친족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은 이들 마을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농촌주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를 이들 마을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반면 평야마을에서 8촌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친족의 범위를 친계 8촌으로 규정된 民法규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평야마을 주민들의 상대

적인 근대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도 보여진다.

7 친족과의 연대의식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보다는 가까이 살면서 보다 많은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웃과의 연대의식이 특히 도시지역사회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표 5-12>에서 볼 것 같으면, 남이라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돌보아 줄 사람이므로 더 친근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가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5-11 친족의 범위

구 분						계	%
지 역 별	근 교	4촌이하	6촌이하	8촌이하	10촌이상	100.0	N = 268 $x^2 = 27.952$ $df = 9$ $x^2 < x^2 0.05$
	평 야	8.0	24.0	41.3	26.7	100.0	
	중 간	6.7	22.5	60.7	10.1	100.0	
	산 간	10.3	15.4	30.8	43.6	100.0	
	계	10.8	16.9	33.9	38.5	100.0	
	계	8.6	20.5	44.4	26.5	100.0	

표 5-12 친족과의 연대의식

구 분				계	%
지 역 별	근 교	친족과 더 친근하다	이웃이 더 친근하다	100.0	N = 264 $x^2 = 3.536$ $df = 3$ $x^2 < x^2 0.05$
	평 야	33.3	66.7	100.0	
	중 간	29.2	70.8	100.0	
	산 간	31.6	68.4	100.0	
	계	43.6	56.4	100.0	
연 령 별	20대	43.8	56.2	100.0	N = 262 $x^2 = 3.526$ $df = 4$ $x^2 < x^2 0.05$
	30대	40.0	60.0	100.0	
	40대	32.1	67.9	100.0	
	50대	32.3	67.7	100.0	
	60대이상	27.4	72.6	100.0	
	계	34.0	66.0	100.0	

㉔ 제사참석 여부

조상에 대한 제사에의 참여는 내 일이 급한 경우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57%로,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한 43%보다 많았고 학력별, 연령별로 살펴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력이 낮을 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 수록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표 5 - 13 제사참석 여부

					%
구 분		반드시 참석	급한 경우 불참	계	
학 력 별	무 학	56.8	43.2	100.0	N = 267 $x^2 = 9.060$ df = 4 $x^2 < x^2_{0.05}$
	국 졸 (㉮)	40.8	59.2	100.0	
	중 졸 (㉮)	31.0	69.0	100.0	
	고 졸 (㉮)	34.2	65.8	100.0	
	대 졸 (㉮)	33.3	66.7	100.0	
	계	43.1	56.9	100.0	
연 령 별	20 대	28.1	71.9	100.0	N = 267 $x^2 = 5.604$ df = 4 $x^2 < x^2_{0.05}$
	30 대	39.6	60.4	100.0	
	40 대	40.0	60.0	100.0	
	50 대	49.2	50.8	100.0	
	60대이상	50.0	50.0	100.0	
	계	43.1	56.9	100.0	

㉕ 마을 배타의식

이 마을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 어느 정도 오래 살아야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84% 정도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본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니더라도 임시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 마을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사회의 정신적 개방화도 크게 진척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평야마을이 마을개방의식의 정도가 특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별로는 젊을 수록 개방의식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 연령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 수록 외부출신인들에 대한 배타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을 의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 표 5 - 14 > 참조).

표 5 - 14 마을배타의식

구 분		오래 살아야 우리마을사람	오래 살지 않아도	계	%
지역 별	근 교	20.3	79.7	100.0	N = 267 $\chi^2 = 7.057$ df = 3 $\chi^2 < \chi^2_{0.05}$
	평 야	7.9	92.1	100.0	
	중 간	17.5	72.5	100.0	
	산 간	21.9	78.1	100.0	
	계	16.1	83.9	100.0	
학 력 별	무 학	27.0	73.0	100.0	N = 265 $\chi^2 = 9.975$ df = 4 $\chi^2 > \chi^2_{0.05}$
	국 졸 (퇴)	13.1	86.9	100.0	
	중 졸 (퇴)	7.7	92.3	100.0	
	고 졸 (퇴)	13.5	86.5	100.0	
	대 졸 (퇴)	-	100.0	100.0	
계	16.2	83.8	100.0		
연 령 별	20 대	3.2	96.8	100.0	N = 265 $\chi^2 = 7.442$ df = 4 $\chi^2 < \chi^2_{0.05}$
	30 대	15.7	84.3	100.0	
	40 대	12.7	87.3	100.0	
	50 대	18.2	81.8	100.0	
	60대이상	24.2	75.8	100.0	
계	16.2	83.8	100.0		

Ⅹ 마을애착심

응답자에게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질문하였는 바 <표 5 - 15 >에서 보면 역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애착을 가진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쪽부락인 근교마을,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애착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연령별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애착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60대 이상에서는 단지 3.6%에 불과한 사람만이 애착이 없다고 하여, 젊은 층일수록 마을 애착심이 약화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Ⅺ 마을정주의사

응답자 자신의 개인적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이 마을에서 계속 살겠는가에 대한 질

표 5 - 15 마을애착심

%

구 분		애착을 가진다	애착이 없다	계	
지역별	근 교	90.6	9.4	100.0	N = 230 $x^2 = 2.911$ df = 3 $x^2 < x^2_{0.05}$
	평 야	82.1	17.9	100.0	
	중 간	79.4	20.6	100.0	
	산 간	85.2	14.8	100.0	
	계	84.8	15.2	100.0	
성별	남	86.8	13.2	100.0	N = 228 $x^2 = 0.704$ df = 1 $x^2 < x^2_{0.05}$
	여	82.8	17.2	100.0	
	계	85.1	14.9	100.0	
연령별	20 대	65.4	34.6	100.0	N = 228 $x^2 = 18.876$ df = 4 $x^2 > x^2_{0.05}$
	30 대	73.8	26.2	100.0	
	40 대	87.2	12.8	100.0	
	50 대	89.5	10.5	100.0	
	60대이상	96.4	3.6	100.0	
	계	85.1	14.9	100.0	

문을 하였는데,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 정도였고, 떠나겠다고 34%, 모르겠다고 13% 정도 되었다.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으나, 연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차이가 뚜렷했다. 20대의 경우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27.6%이 나, 떠나겠다는 48.3%, 30대는 각각 36.5, 42.3%로 떠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60대는 3분의 2 이상이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 농촌지역에서 은퇴한 노령의 부부 가족형태가 상당기간 존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 준다.

1985년의 조사에서는 농촌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비율이 75%에,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살겠다는 응답율은 24% 정도였다. 금번 조사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1985년도 조사대상자는 경영주였기 때문에 정주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5-16〉 참조).

12 마을공동활동참여

마을에서 하는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보수 등 마을공동활동들에 어느 정도나 참여해

. 표 5 - 16 마을정주의사

구 분		여기서 계속 살겠다	떠나겠다	모르겠다	계	
성 별	남	57.5	29.8	12.8	100.0	N = 264 $x^2 = 2.760$ $df = 2$ $x^2 < x^2_{0.05}$
	여	48.0	39.0	13.0	100.0	
	계	53.0	34.1	12.9	100.0	
연 령 별	20 대	27.6	48.3	24.1	100.0	N = 264 $x^2 = 28.379$ $df = 8$ $x^2 > x^2_{0.05}$
	30 대	36.5	42.3	21.2	100.0	
	40 대	47.3	41.8	10.9	100.0	
	50 대	66.7	27.3	6.1	100.0	
	60대이상	69.4	21.0	9.7	100.0	
	계	53.0	34.1	12.9	100.0	

표 5 - 17 마을공동활동 참여

구 부		싫더라도 참여	혜택 받는 사람 만 참여	계	
지 역 별	근 교	97.3	2.7	100.0	N = 265 $x^2 = 11.743$ $df = 3$ $x^2 > x^2_{0.05}$
	평 야	87.6	12.4	100.0	
	중 간	100.0	-	100.0	
	산 간	96.9	3.1	100.0	
	계	94.3	5.7	100.0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4%가 마을사람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공동작업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별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평야 마을의 경우 공동작업 참여의식이 다른 마을주민들에 비해 약간 약한 편임을 < 표 5 - 17 >은 보여주고 있다.

13 전통규범의 적용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전통적인 규범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바 그것들은 그에 따르는 사회적制裁(social sanction)를 통해 성원들의 행동 뿐만 아니

라 의식과 가치관도 규정짓게 된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오면서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 체계와 성문규정들이 마을의 독자적인 규범을 대체해 가고 있다. 본 조사에서의 질문은 마을내에서 발생하는 逸脫的 행동들에 대해 전통규범을 적용시키는 것에 관한 피조사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었다.

〈표 5-18〉을 보면 마을내에서 전통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67% 정도에 이르고 있고, 마을별로는 평야마을에서 法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타 마을에 비해 특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8 전통규범의 준수

					%
구	분	전통규범에 따라	법대로 처리	계	
지 역 별	근 교	72.6	27.4	100.0	N = 256
	평 야	52.9	47.1	100.0	$x^2 = 12.435$
	중 간	71.1	28.9	100.0	$df = 3$
	산 간	78.3	21.7	100.0	$x^2 > x^2 0.05$
	계	67.2	32.8	100.0	

14 마을공동재산의 필요성

마음 논(종중논)이나 산, 수리보, 마을회관 등과 같은 마을의 공동재산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역시 90% 정도에 다다르고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마을별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5-19 마을공동재산의 필요성

					%
구	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계	
지 역 별	근 교	89.2	10.8	100.0	N = 254
	평 야	89.4	10.6	100.0	$x^2 = 0.778$
	중 간	92.3	7.7	100.0	$df = 3$
	산 간	92.9	7.1	100.0	$x^2 < x^2 0.05$
	계	90.6	9.4	100.0	

15 사회보장기능의 담당자

마을에서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불우가정들에 대한 부조의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웃주민이라는 응답과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을별로나 연령별로는 응답자간에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20 사회보장 기능의 담당자

구 분		이웃주민	정 부	계	%
지 역 별	근 교	45.2	54.8	100.0	N = 254 $\chi^2 = 2.874$ $df = 3$ $\chi^2 < \chi^2_{0.05}$
	평 야	41.0	59.0	100.0	
	중 간	40.5	59.5	100.0	
	산 간	54.1	45.9	100.0	
	계	45.3	54.7	100.0	
연 령 별	20 대	48.4	51.6	100.0	N = 252 $\chi^2 = 3.340$ $df = 4$ $\chi^2 < \chi^2_{0.05}$
	30 대	44.9	55.1	100.0	
	40 대	46.2	53.8	100.0	
	50 대	36.5	63.5	100.0	
	60대이상	52.6	47.4	100.0	
	계	45.2	54.8	100.0	

16 마을내 의사결정의 주체

마을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제들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는 마을의 리더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5-21>을 보면, 마을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급 유지들이나(2.7%), 이장 등 근대적 조직체제의 임원들끼리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27%)는 응답자 비율보다는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70%) 부락회의 등을 통한 중요문제들의 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지역이나 학력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따라 보면 나이든 층일수록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의 몇몇 사람들에 의한 寡頭的 형태의 의사결정을 찬성

표 5-21 마을내 의사결정 주체

구 분		몇몇유지	이 장 등	주민전체	계	%
지역별	근 교	2.7	23.3	74.0	100.0	N = 265 $x^2 = 10.927$ df = 6 $x^2 < x^2 0.05$
	평 야	1.2	23.3	75.6	100.0	
	중 간	-	42.5	57.5	100.0	
	산 간	6.1	30.3	63.6	100.0	
	계	2.6	27.9	69.4	100.0	
학력별	무 학	4.1	37.0	58.9	100.0	N = 263 $x^2 = 10.509$ df = 8 $x^2 < x^2 0.05$
	국 졸 (퇴)	3.4	25.2	71.4	100.0	
	중 졸 (퇴)	-	27.6	72.4	100.0	
	고 졸 (퇴)	-	19.4	80.6	100.0	
	대 졸 (퇴)	-	-	100.0	100.0	
	계	2.7	27.4	70.0	100.0	
연령별	20 대	-	15.6	84.4	100.0	N = 263 $x^2 = 23.207$ df = 8 $x^2 > x^2 0.05$
	30 대	-	23.5	76.5	100.0	
	40 대	3.7	22.2	74.1	100.0	
	50 대	-	27.3	72.7	100.0	
	60대이상	8.3	41.7	50.0	100.0	
	계	2.7	27.4	70.0	100.0	

하고 젊은 층일수록 주민전체의 의견청취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민주적 형태의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 마을공동신앙에 대한 믿음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洞祭나 우물치기 등 공동신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믿진 않으나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므로 그냥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61% 정도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마을공동신앙에 더 신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별로 보면 중간마을의 경우는 필요없다는 비율이 유달리 높고, 반면 중간마을에서는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시 높다. 산간마을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음력 정월 초하루를 전후로 실시되는 山神祭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 5 - 22 마을공동신앙에 대한 믿음

%

구 분		믿는다	믿지 않으나 그냥 한다	필요 없다	계	
학 력 별	무 학	33.3	51.5	15.2	100.0	N = 235 $\chi^2 = 17.782$ $df = 8$ $\chi^2 > \chi^2_{0.05}$
	국 졸 (퇴)	19.6	62.6	17.8	100.0	
	중 졸 (퇴)	4.4	69.6	26.1	100.0	
	고 졸 (퇴)	6.1	66.7	27.3	100.0	
	대졸(퇴)이상	-	66.7	33.3	100.0	
	계	19.6	60.9	19.6	100.0	
지 역 별	근 교	17.5	55.5	27.0	100.0	N = 237 $\chi^2 = 38.488$ $df = 6$ $\chi^2 > \chi^2_{0.05}$
	평 야	14.1	71.8	14.1	100.0	
	중 간	3.3	50.0	46.7	100.0	
	산 간	37.3	57.6	5.1	100.0	
	계	19.4	61.2	19.4	100.0	
연 령 별	20 대	15.4	76.9	7.7	100.0	N = 235 $\chi^2 = 15.889$ $df = 8$ $\chi^2 > \chi^2_{0.05}$
	30 대	7.5	70.0	22.5	100.0	
	40 대	16.0	62.0	22.0	100.0	
	50 대	18.8	60.9	20.3	100.0	
	60 대	34.6	45.5	20.0	100.0	
	계	19.6	60.9	19.6	100.0	
성 별	남	14.7	61.2	24.0	100.0	N = 235 $\chi^2 = 6.340$ $df = 2$ $\chi^2 > \chi^2_{0.05}$
	여	25.5	60.4	14.2	100.0	
	계	19.6	60.9	19.6	100.0	

118 마을공동놀이, 행사와 주민유대

마을주민들이 모여 하는 놀이나 행사 등이 주민들간의 협동, 유대를 증진하는 데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75%정도가 유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을과 학력별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대는 31%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각각 87.3, 82%가 유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놀이,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표 5-23 마을공동놀이, 행사와 주민유대

					%
구 분		유대에 도움	별로 도움 안됨	계	
지역별	근 교	77.1	22.9	100.0	N = 257 $x^2 = 3.202$ $df = 3$ $x^2 < x^2 0.05$
	평 야	75.6	24.4	100.0	
	중 간	64.1	35.9	100.0	
	산 간	79.0	21.0	100.0	
	계	75.1	24.9	100.0	
학력별	무 학	78.6	21.4	100.0	N = 255 $x^2 = 2.056$ $df = 4$ $x^2 < x^2 0.05$
	국 졸 (퇴)	76.1	23.9	100.0	
	중 졸 (퇴)	65.4	34.6	100.0	
	고 졸 (퇴)	75.0	25.0	100.0	
	대 졸 (퇴)	66.7	33.3	100.0	
계	75.3	24.7	100.0		
연령별	20 대	69.0	31.0	100.0	N = 255 $x^2 = 12.034$ $df = 4$ $x^2 > x^2 0.05$
	30 대	66.0	34.0	100.0	
	40 대	65.4	34.6	100.0	
	50 대	87.3	12.7	100.0	
	60대이상	82.0	18.0	100.0	
계	75.3	24.7	100.0		

19 농업의 국가근본의식

농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근본이며 農者가 天下大之本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실제 농촌주민들은 이러한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80%에 이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농업의 중대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표 5-24>를 보면, 지역별, 직업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학력과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무학에서 중졸(퇴)까지 농업의 국가근본의식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줄어들다가, 고졸(퇴)에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저학력층에서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현실적으로 처하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응답한 것이며 고학력층에서는 농업의 국가근본의식을 當爲의 차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와 60대 이상이 국가근본의식이 높고 30

~ 50대가 비교적 낮는데 20대층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 가치를 높게 두고 있는 반면 30~50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24 농업의 국가근본의식

%

구 분		국가의 근본이다	더 이상 아니다	계	
지역별	근 교	76.1	23.9	100.0	N = 236 $\chi^2 = 3.246$ $df = 3$ $\chi^2 < \chi^2_{0.05}$
	평 야	79.1	20.9	100.0	
	중 간	76.3	23.7	100.0	
	산 간	87.5	12.5	100.0	
	계	80.1	19.9	100.0	
학 력 별	무 학	87.9	12.1	100.0	N = 234 $\chi^2 = 11.769$ $df = 4$ $\chi^2 > \chi^2_{0.05}$
	국 졸 (퇴)	82.1	17.9	100.0	
	중 졸 (퇴)	57.7	42.3	100.0	
	고 졸 (퇴)	73.3	26.7	100.0	
	대 졸 (퇴)	83.3	16.7	100.0	
	계	79.9	20.1	100.0	
연 령 별	20 대	88.5	11.5	100.0	N = 233 $\chi^2 = 14.417$ $df = 4$ $\chi^2 > \chi^2_{0.05}$
	30 대	63.4	36.6	100.0	
	40 대	77.6	22.4	100.0	
	50 대	77.1	22.9	100.0	
	60대이상	92.9	7.1	100.0	
	계	79.8	20.2	100.0	
직 업 별	농 업	79.2	20.8	100.0	N = 234 $\chi^2 = 3.304$ $df = 3$ $\chi^2 < \chi^2_{0.05}$
	농업+비농업	66.7	33.3	100.0	
	비 농 업	86.7	13.3	100.0	
	무 직	88.5	11.5	100.0	
	계	79.9	20.1	100.0	

㉔ 농사계속여부(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계속 짓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8%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능력이 없으므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2%에 달했다. 이들도 대부분은 고령자층으로 轉業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층이다. 반면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육박하여 농업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해 懷疑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탈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학력과 연령, 직업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중졸과 고졸에서 높은 편이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농업에 대한 회의가 크다고 하겠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계속 짓겠다는 응답자는 全無하고 90%이상의 대다수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응답 하였으며 60대 이상은 33%가 계속 짓겠다, 62%가 계속 지을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하는 등,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농사이외의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아서도 농업 專業者에 비해 비농업과의 兼業者들 사이에서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나타나고 있고, 농업종사자들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계속 짓겠다는 응답자들보다 소극적으로 계속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 농업종사자들에서도 농업에 대한 기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㉑ 영농계승의사(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자녀에 대한 영농계승의사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비율은 다음 <표 5-2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식의 代에서도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3.1% 밖에 안되고, 본인의 의사대로이나 가급적 하라고 권유한다는 긍정적 권유형이 20%정도, 본인의 의사대로이나 가급적 하지 말라고 권유한다는 부정적 권유형은 가장 많은 44%정도,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리겠다는 응답자 비율도 33%나 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계승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응답자 비율은 모두 23%정도에 불과한 편이고, 영농계승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반면에 77%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마을에 따라서는 근교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의 순서로 영농계승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 의미는 적다. 학력별로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모두 무학과 국졸인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통계적 의미도 적다. 연령별로는 특히 60대 이상의 층에서 영농계승의 의사가 높고, 50대는 40대 이하에 비해 약간 영농계승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에 따른 응답내용의 차이는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5 농사계속 여부(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

구분		계속 하겠다	계속 할수 없다	다른 일 하겠다	계	
지역 별	근교	17.7	45.1	37.3	100.0	N = 199 $x^2 = 3.800$ $df = 6$ $x^2 < x^2_{0.05}$
	평야	20.4	42.6	37.0	100.0	
	중간	15.8	50.0	34.2	100.0	
	산간	19.6	32.1	48.2	100.0	
	계	18.6	41.7	39.7	100.0	
학력 별	무학	16.4	61.8	21.8	100.0	N = 197 $x^2 = 32.392$ $df = 8$ $x^2 > x^2_{0.05}$
	국졸(퇴)	20.6	43.3	36.1	100.0	
	중졸(퇴)	4.4	21.7	73.9	100.0	
	고졸(퇴)	25.0	10.0	65.0	100.0	
	대졸(퇴)	50.0	-	50.0	100.0	
	계	18.3	42.1	39.6	100.0	
연령 별	20대	-	6.3	93.8	100.0	N = 197 $x^2 = 68.470$ $df = 8$ $x^2 > x^2_{0.05}$
	30대	6.1	15.2	78.8	100.0	
	40대	11.1	48.9	40.0	100.0	
	50대	24.6	47.5	27.9	100.0	
	60대이상	33.3	61.9	4.8	100.0	
	계	18.3	42.1	39.6	100.0	
직업 별	농업	19.0	44.7	36.3	100.0	N = 197 $x^2 = 8.932$ $df = 2$ $x^2 > x^2_{0.05}$
	농업+비농업	11.1	16.7	72.2	100.0	
	계	18.3	42.1	39.6	100.0	

표 5-26 자녀에게 영농계승의사(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

구분		자식의 대에서도 받드시 지어야	본인의사 대로이나 가급적이 하라고 유권	본인의사 대로이나 가급적이 고유	것말라고	계	
지역별	근교	2.0	11.7	45.1	41.2	100.0	N = 197 $x^2 = 6.270$ $df = 9$ $x^2 < x^2_{0.05}$
	평야	1.8	21.8	45.5	30.9	100.0	
	중간	2.6	23.1	46.1	28.2	100.0	
	산간	5.8	25.0	38.5	30.7	100.0	
	계	3.1	20.3	43.6	33.0	100.0	
학력별	무학	5.6	22.2	35.2	37.0	100.0	N = 195 $x^2 = 8.661$ $df = 12$ $x^2 < x^2_{0.05}$
	국졸(퇴)	3.1	16.7	47.9	32.3	100.0	
	중졸(퇴)	-	19.1	57.1	23.8	100.0	
	고졸(퇴)	-	27.3	40.9	31.8	100.0	
	대졸(퇴)	-	50.0	-	50.0	100.0	
계	3.1	20.0	44.1	32.8	100.0		
연령별	20대	6.7	6.7	53.3	33.3	100.0	N = 195 $x^2 = 25.672$ $df = 12$ $x^2 > x^2_{0.05}$
	30대	-	12.5	50.0	37.5	100.0	
	40대	-	15.2	45.7	39.1	100.0	
	50대	4.9	14.8	50.8	29.5	100.0	
	60대이상	4.9	43.9	24.4	26.8	100.0	
계	3.1	20.0	44.1	32.8	100.0		

22 목돈이 생겼을 때 우선투자할 곳

농촌주민들의 농업에 대한 신규 또는 확대재생산에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겠는가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7>과 같다. 이를 통해서 보면 농토구입이나 기계 또는 농사시설장만 등 전부 농사일에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2%, 일부만 다른 데에 쓰고 나머지 대부분을 농사일에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정도, 반대로 일부만 농사일에 쓰고 나머지 대부분을 다른 데에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많은 22%정도, 그리고 전부 농사 말고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하여 농업에의 투자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31%나 되었다. 즉 농사일에 전부 쓰거나 대부분을 쓰려고 하는 응답자는 모두 40%수준이고 나머지 중 53% 정도는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마을

이나 직업, 경작면적과 같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㉓ 농사일 사용처

윗 문항에서 전부 혹은 대부분을 농사일에 쓰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농사일 어디에 쓰겠는가를 물었는데, 그 결과 농토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67.4%로 가장 많고 나머지가 10%이내씩으로 농사시설개량, 농기계구입, 농용자재구입, 축산, 원예등이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은 농토의 확장을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를 농업의 확대재생산의 주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㉔ 농사일 이외의 사용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농사일 이외의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어디에 쓰겠

표 5-27 목돈이 생겼을 때 우선 투자할 곳

구 분		전 부 농사에	대부분 농사에	대부분 다른곳	전 부 다른곳	모 르 겠 다	계	%
지 역 별	근 교	18.6	21.4	24.3	27.1	8.6	100.0	N = 262 $\chi^2 = 9.133$ $df = 12$ $\chi^2 < \chi^2_{0.05}$
	평 야	23.9	20.5	15.9	35.2	4.5	100.0	
	중 간	30.0	12.5	25.0	27.5	5.0	100.0	
	산 간	18.8	14.1	26.6	31.3	9.4	100.0	
	계	22.1	17.9	22.1	30.9	6.9	100.0	
직 업 별	농 업	22.6	19.6	19.6	31.2	7.0	100.0	N = 260 $\chi^2 = 11.737$ $df = 12$ $\chi^2 < \chi^2_{0.05}$
	농업+비농업	20.0	20.0	35.0	25.0	-	100.0	
	비 농 업	25.0	-	37.5	37.5	-	100.0	
	무 직	20.0	12.0	24.0	32.0	12.0	100.0	
	계	22.3	17.7	22.3	31.2	6.5	100.0	
경 작 면 적 별	무 경 작	23.9	6.5	28.3	30.4	10.9	100.0	N = 260 $\chi^2 = 27.275$ $df = 20$ $\chi^2 < \chi^2_{0.05}$
	0-0.5ha	29.3	19.5	22.0	14.6	14.6	100.0	
	0.5-1ha	16.9	14.1	22.5	43.7	2.8	100.0	
	1-1.5ha	26.7	24.4	22.2	24.4	2.2	100.0	
	1.5-2ha	22.2	25.9	18.5	29.6	3.7	100.0	
	2ha이상	16.7	23.3	16.7	36.7	6.7	100.0	
계	22.3	17.7	22.3	31.2	6.5	100.0		

표 5 - 28 농사일 사용처

구 분		농 토 구 입	시 설 개 량	기 계 구 입	자 재 구 입	축 산	원 예	계	%
지 역 별	근 교	48.0	16.0	8.0	12.0	12.0	4.0	100.0	N = 92 $x^2 = 16.137$ $df = 15$ $x^2 < x^2 0.05$
	평 야	67.6	5.4	2.7	8.1	10.8	5.4	100.0	
	중 간	85.7	7.1	7.1	-	-	-	100.0	
	산 간	81.3	-	-	18.8	-	-	100.0	
	계	67.4	7.6	4.4	9.8	7.6	3.3	100.0	

능가를 물었는데 그 결과는 < 표 5 - 29 > 와 같다. 주택이나 토지구입과 같은 부동산에의 투자가 25.6%,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증권구입이 3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평야마을의 경우는 저축·증권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월등 높으나 여타 마을에 있어서는 부동산구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연령층에 따른 사용처의 차이점이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20대층에서 장사·사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 29 농사일 이외 사용처

구 분		부동산	저 축 권	자 녀 에 게	장 사 업	부 채 결 핵	자 녀 교 육	기 타	계	%
지 역 별	근 교	30.0	16.7	13.3	16.7	-	16.7	6.7	100.0	N = 125 $x^2 = 57.861$ $df = 18$ $x^2 > x^2 0.05$
	평 야	7.0	67.4	-	18.6	2.3	2.3	2.3	100.0	
	중 간	41.2	11.8	17.7	17.7	5.9	5.9	-	100.0	
	산 간	37.1	8.6	11.4	8.6	5.7	14.3	14.3	100.0	
	계	25.6	31.2	8.8	15.2	3.2	9.6	6.4	100.0	
연 령 별	20 대	11.8	35.3	-	29.4	5.9	-	17.7	100.0	N = 125 $x^2 = 30.671$ $df = 24$ $x^2 < x^2 0.05$
	30 대	36.8	21.1	-	15.8	5.3	15.8	5.3	100.0	
	40 대	27.6	41.4	3.5	6.9	-	17.2	3.5	100.0	
	50 대	25.0	25.0	17.9	21.4	-	3.6	7.1	100.0	
	60대이상	25.0	31.3	15.6	9.4	6.3	9.4	3.1	100.0	
	계	25.6	31.2	8.8	15.2	3.2	9.6	6.4	100.0	

㉔ 새로운 농사기술 수용의사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새로운 품종의 선택이나 토지이용, 농약등의 선택과 같은 새로운 농사기술을 선택함에 있어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가에 관한 질문인데, 거의 대부분은 새 기술의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5%정도가 찬성하며, 41%는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아가며 수용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 적용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지만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경향은 아니고, 연령별로도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5 - 30 새로운 농사기술 수용의사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
구	분	기존기술 고수	다른사람 보아가며	적극적용	계	
학 력 별	무학	3.6	58.2	38.2	100.0	N = 201 $\chi^2 = 11.513$ df = 8 $\chi^2 < \chi^2_{0.05}$
	국졸(퇴)	4.0	36.4	59.6	100.0	
	중졸(퇴)	4.2	33.3	62.5	100.0	
	고졸(퇴)	-	33.3	66.7	100.0	
	대졸(퇴)	-	-	100.0	100.0	
	계	3.5	41.3	55.2	100.0	
연 령 별	20대	6.7	40.0	53.3	100.0	N = 201 $\chi^2 = 5.851$ df = 8 $\chi^2 < \chi^2_{0.05}$
	30대	2.7	40.5	56.8	100.0	
	40대	4.2	41.7	54.2	100.0	
	50대	-	38.3	61.7	100.0	
	60대이상	7.3	46.3	46.3	100.0	
	계	3.5	41.3	55.2	100.0	

㉕ 재배하고 싶은 작물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경지가 좀 더 있다면 우선 재배하고 싶은 작물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전통농업에서는 미작을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副食의 차원에서 재배하는 미곡단작농업이 이념형적 작목형태였지만 상업화해가는 농업에서는 다양한 고소득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이운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표 5 - 31>에서는 재배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작목을 몇가지를 마을별로 나타낸 것이다.

뚜렷한 소득작물이 없는 근교마을에서는 벼가 주종(47.6%)이고 그 외 과수, 인삼, 콩, 팥 등이 미미한 비율로 선택되고 있는 작물들이다. 평야지역은 벼 이외에 현재 畵裏作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어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딸기재배의 선택이 약 19%에 달하고 있다. 밭이 많은 중간마을의 경우 땅콩을 상당히 재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배면적의 확대의사에 있어서도 땅콩이 벼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깨나 약초, 수박과 같은 소득작물들도 선호되는 작물속에 속하고 있다. 산간마을은 논외 면적이 매우 적어 벼를 심겠다는 응답자는 거의 없고 역시 이 마을에서 주산작물이 되고 있는 인삼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냉지 배추와 콩, 팥, 약초를 심겠다는 응답자와, 잠업진흥에 따른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뽕나무 식재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작목의 종류는 역시 산간지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5-31 재배하고 싶은 작물(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구 분		작 물						%	
지 역 별	근 교	벼 47.6	과수 7.1	인삼 4.8	콩·팥 4.8				
	평 야	벼 45.3	딸기 18.9						
	중 간	땅콩 32.1	벼 28.6	깨 10.7	약초 7.1	수박 7.1			
	산 간	인삼 51.1	배추 8.9	콩·팥 4.4	약초 4.4	뽕나무 4.4			

㉓ 농토매매에 대한 의사

토지는 농촌주민들에게 있어 농업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생산수단의 장이 아니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자 농촌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영위되는 생활의 장이므로, 따라서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유달리 강한 것이 전통농촌주민들의 의식이였다. 그러나 상업화된 현대농업경제에서 토지는 농민이 보유한 다양한 생산수단 중의 일부일 뿐이다. 본 조사에서는 농토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5-32>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농토를 팔면 안되고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49%)은 농토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51%)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표 5-32 농토매매에 대한 의사

%

구	분	팔면 안된다	언제든 처분	계	
학 력 별	무 학	66.2	33.8	100.0	N = 250 $x^2 = 13.882$ $df = 4$ $x^2 > x^2 0.05$
	국 졸 (퇴)	45.7	54.3	100.0	
	중 졸 (퇴)	42.9	57.1	100.0	
	고 졸 (퇴)	33.3	66.7	100.0	
	대 졸 (퇴)	20.0	80.0	100.0	
	계	48.8	51.2	100.0	
직 업 별	농 업	48.7	51.3	100.0	N = 250 $x^2 = 1.461$ $df = 3$ $x^2 < x^2 0.05$
	농업+비농업	61.1	38.9	100.0	
	비 농 업	43.8	56.3	100.0	
	무 직	44.4	55.6	100.0	
	계	48.8	51.2	100.0	
연 령 별	20 대	37.9	62.1	100.0	N = 250 $df = 4$ $x^2 = 10.838$ $x^2 > x^2 0.05$
	30 대	37.0	63.0	100.0	
	40 대	41.2	58.8	100.0	
	50 대	55.4	44.6	100.0	
	60대이상	62.7	37.3	100.0	
	계	48.8	51.2	100.0	
경 작 규 모 별	무 경 작	46.7	53.3	100.0	N = 250 $x^2 = 6.606$ $df = 5$ $x^2 < x^2 0.05$
	0-0.5ha	65.8	34.2	100.0	
	0.5-1 ha	41.2	58.8	100.0	
	1-1.5ha	51.2	48.8	100.0	
	1.5-2ha	42.3	57.7	100.0	
	2ha이상	50.0	50.0	100.0	
	계	48.8	51.2	100.0	

직업이나 경작규모 등 가계경영여건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학력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일 수록, 그리고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 수록 농토를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보고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㉔ 농토에 대한 재산의식

윗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농토라고 하는 단일 지표로 빈부의 구분을 짓던 것이

전통농촌이었다고 한다면 현대에 와서 그와 같은 의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겠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표 5-33〉을 보면, 지금도 뭐니뭐니해도 농토가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33%, 땅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67% 정도로 후자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직업과 경지규모별로는 응답자간 차이가 별로 없고, 학력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 수록, 그리고 연령

표 5-33 농토에 대한 재산의식

구 분		농토가 많아야 부 자	땅 많다고 부자 아니다	계	%
학 력 별	무 학	43.1	56.9	100.0	N = 259 $x^2 = 10.830$ $df = 4$ $x^2 > x^2 0.05$
	국 졸 (퇴)	34.8	65.2	100.0	
	중 졸 (퇴)	25.9	74.1	100.0	
	고 졸 (퇴)	13.5	86.5	100.0	
	대 졸 (퇴)	20.0	80.0	100.0	
	계	32.8	67.2	100.0	
직 업 별	농 업	34.5	65.5	100.0	N = 259 $x^2 = 3.155$ $df = 3$ $x^2 < x^2 0.05$
	농업+비농업	40.0	60.0	100.0	
	비 농 업	18.8	81.3	100.0	
	무 직	24.1	75.9	100.0	
	계	32.8	67.2	100.0	
연 령 별	20 대	13.8	86.2	100.0	N = 259 $x^2 = 13.157$ $df = 4$ $x^2 > x^2 0.05$
	30 대	24.0	76.0	100.0	
	40 대	34.6	65.4	100.0	
	50	32.3	67.7	100.0	
	60대이상	48.3	51.7	100.0	
	계	32.8	67.2	100.0	
경 지 규 모 별	무 경 작	26.0	74.0	100.0	N = 259 $x^2 = 2.414$ $df = 5$ $x^2 < x^2 0.05$
	0 -0.5 ha	28.2	71.8	100.0	
	0.5 -1 ha	35.7	64.3	100.0	
	1.0 -1.5 ha	38.6	61.4	100.0	
	1.5 -2.0 ha	34.6	65.4	100.0	
	2.0 ha 이상	33.3	66.7	100.0	
	계	32.8	67.2	100.0	

이 낮을 수록 농토가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는 의식은 사라져가고 있다.

㉔ 토양훼손에 대한 의식

이는 농업이 상업화되면서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생산농민들의 입장에서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바, 그러한 상업적 영농의 구현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70%를 넘고, 생산물이 적어지더라도 비료와 농약을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가 못되었다. 대체로 보면 당위적으로는 퇴비 등을 사용하는 것에 찬동하나 일손부족과 다수확을 통한 소득증대 등의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해 비료나 농약사용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지역별로는 답작위주의 평야마을에서 비료, 농약 사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 비율은 근교, 중간, 산간마을 순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밭이 많은 산간마을에서는 아직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의 필요성을 다른 마을에 비해 적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34 토양훼손에 대한 의식

					%
구 분		비료·농약 되도록 안씀	비료·농약 많이 씀	계	
지 역 별	근 교	26.8	73.2	100.0	N = 250 $\chi^2 = 9.632$ $df = 3$ $\chi^2 > \chi^2_{0.05}$
	평 야	19.3	80.7	100.0	
	중 간	35.3	64.7	100.0	
	산 간	41.9	58.1	100.0	
	계	29.2	70.8	100.0	
연 령 별	20 대	25.0	75.0	100.0	N = 250 $\chi^2 = 2.361$ $df = 4$ $\chi^2 < \chi^2_{0.05}$
	30 대	25.5	74.5	100.0	
	40 대	24.5	75.5	100.0	
	50 대	32.3	67.7	100.0	
	60 대이상	35.0	65.0	100.0	
	계	29.2	70.8	100.0	

30 풍수사상에 대한 신뢰

묘자리나 집터를 골라 잡아야 집안이 평안하고 우환이 없다고 하는 풍수사상은 아직 까지도 민간계층에 널리 퍼져있는 민속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마을주민들은 이와 같은 풍수사상에 대해 약 63%가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할 바가 못 된다고 한 사람은 약 37%정도이었다. 지역별로는 근교와 중간, 평야마을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지나 산간마을의 경우는 풍수사상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매우 높아 87.3%나 되고 있다. 이처럼 풍수사상에 대한 산간마을주민들의 높은 신뢰는 이 마을의 독특한 성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력과 연령, 성에 따른 응답자들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표 5 - 35 풍수사상에 대한 신뢰

%

구 분		믿 는 다	안 믿는다	계	
지 역 별	근 교	56.5	43.5	100.0	N = 241 $x^2 = 18.586$ $df = 3$ $x^2 > x^2_{0.05}$
	평 야	54.0	46.0	100.0	
	중 간	56.8	43.2	100.0	
	산 간	87.3	12.7	100.0	
	계	62.7	37.3	100.0	
학 력 별	무 학	69.1	30.9	100.0	N = 240 $x^2 = 3.405$ $df = 4$ $x^2 < x^2_{0.05}$
	국 졸(퇴)	62.7	37.3	100.0	
	중 졸(퇴)	52.2	47.8	100.0	
	고 졸(퇴)	61.8	38.2	100.0	
	대 졸(퇴)	40.0	60.0	100.0	
계	62.9	37.1	100.0		
연 령 별	20 대	61.5	38.5	100.0	N = 240 $x^2 = 3.719$ $df = 4$ $x^2 < x^2_{0.05}$
	30 대	54.6	45.5	100.0	
	40 대	62.8	37.3	100.0	
	50 대	60.7	39.3	100.0	
	60대이상	72.4	27.6	100.0	
계	62.9	37.1	100.0		
성 별	남	62.6	37.4	100.0	N = 240 $x^2 = 0.013$ $df = 1$ $x^2 < x^2_{0.05}$
	여	63.3	36.7	100.0	
	계	62.9	37.1	100.0	

31 자연재해의 원인에 대한 인식

홍수나 한발과 같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 대해 전통농촌주민들은 과학적 해명보다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비로운 자연적 질서에 그 설명을 돌리는 민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 합리적 사고의 발달과 정보매체를 통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으로 그와 같은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조사대상주민들은 77%정도가 단순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지역이나 학력, 연령, 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가 없는 분포였다.

표 5 - 36 자연재해의 원인에 대한 인식

					%
구 분		조화로운 자연질서 깨져	단 순 한 기 상 이 변	계	
지 역 별	근 교	28.8	71.2	100.0	N = 219 $x^2 = 1.920$ $df = 3$ $x^2 < x^2 0.05$
	평 야	20.0	80.0	100.0	
	중 간	24.3	75.7	100.0	
	산 간	19.6	80.4	100.0	
	계	23.3	76.7	100.0	
학 력 별	무 학	28.3	71.7	100.0	N = 218 $x^2 = 3.626$ $df = 4$ $x^2 < x^2 0.05$
	국 졸 (퇴)	18.1	81.9	100.0	
	중 졸 (퇴)	33.3	66.7	100.0	
	고 졸 (퇴)	25.7	74.3	100.0	
	대 졸 (퇴)	25.0	75.0	100.0	
계	23.4	76.6	100.0		
연 령 별	20 대	32.0	68.0	100.0	N = 217 $x^2 = 4.655$ $df = 4$ $x^2 < x^2 0.05$
	30 대	31.8	68.2	100.0	
	40 대	20.9	79.1	100.0	
	50 대	19.0	81.0	100.0	
	60대이상	17.0	83.0	100.0	
계	23.0	77.0	100.0		
성 별	남	20.6	79.4	100.0	N = 218 $x^2 = 1.269$ $df = 1$ $x^2 < x^2 0.05$
	여	27.2	72.8	100.0	
	계	23.4	76.6	100.0	

32 관존민비의식

〈표 5-37〉은 군청이나 면의 공무원들, 그리고 농협직원들과 같은 농촌주민들이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80%정도의 응답자들은 근대적 권리의식, 즉 공무원, 농협직원들은 농촌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0%정도의 응답자들만이 전통적 관존민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이나 학력, 연령별로 모두 응답자 간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근교, 평야, 중간마을이 서로 비슷한 분포이나 산간마을에서는 관존민비의식을 가진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았다(45.5%).

학력별로는 고졸(퇴) 이상은 전부 근대적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하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관존민비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아서는 50대 이하에서는 관존민비의식이 연령이 높을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60대 이상에 이르면 절반정도가 관존민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5-37 관존민비 의식

					%
구 분		관존민비의식	근대적 권리의식	계	
지역 별	근 교	15.7	84.3	100.0	N = 245 $x^2 = 28.627$ $df = 3$ $x^2 > x^2_{0.05}$
	평 야	9.5	90.5	100.0	
	중 간	16.7	83.3	100.0	
	산 간	45.5	54.5	100.0	
	계	20.4	79.6	100.0	
학 력 별	무 학	49.2	50.8	100.0	N = 244 $x^2 = 47.107$ $df = 4$ $x^2 > x^2_{0.05}$
	국 졸(퇴)	14.8	85.2	100.0	
	중 졸(퇴)	7.7	92.3	100.0	
	고 졸(퇴)	-	100.0	100.0	
	대 졸(퇴)	-	100.0	100.0	
계	20.5	79.5	100.0		
연 령 별	20 대	3.1	96.9	100.0	N = 244 $x^2 = 43.830$ $df = 4$ $x^2 > x^2_{0.05}$
	30 대	2.4	97.6	100.0	
	40 대	15.7	84.3	100.0	
	50 대	19.3	80.7	100.0	
	60대이상	49.1	50.9	100.0	
	계	20.5	79.5	100.0	

33 장유유서의식

장유유서는 전통시대를 특징짓는 유교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사회원리였다. 이에 대한 조사대상주민들의 의식은 나보다 나이든 사람에게 무조건 공손해야 한다고 하는 장유유서의식에 동조하는 응답자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응답자 비율은 37%정도 되어 아직 유교적 가치의 사회질서유지 원리로서의 중요성을 농촌주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만 학력별로 보면 중졸(퇴) 이하까지는 장유유서의식이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높은 경향인데, 고졸, 대졸 등의 고학력자들에서는 장유유서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표 5-38 장유유서 의식

					%
구 분		공 손 해 야	그 령 지 않 을 수 도	계	
학 력 별	무 학	75.4	24.6	100.0	N = 261 $\chi^2 = 11.958$ $df = 4$ $\chi^2 > \chi^2_{0.05}$
	국 졸(퇴)	63.6	36.4	100.0	
	중 졸(퇴)	39.3	60.7	100.0	
	고 졸(퇴)	59.5	40.5	100.0	
	대 졸(퇴)	50.0	50.0	100.0	
	계	63.2	36.8	100.0	
연 령 별	20 대	53.1	46.9	100.0	N = 261 $\chi^2 = 7.239$ $df = 4$ $\chi^2 < \chi^2_{0.05}$
	30 대	53.9	46.2	100.0	
	40 대	60.4	39.6	100.0	
	50 대	73.9	26.2	100.0	
	60대이상	67.8	32.2	100.0	
	계	63.2	36.8	100.0	

34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27.4%가 평등할 수 없다고 하였고 72.6%는 평등하다고 응답하여,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농촌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평등의식이 강한 경

표 5-39 남녀평등 의식

구 분		평등하지 않다	평 등 하 다	계	%
학 력 별	무 학	37.7	62.3	100.0	N = 252 $x^2 = 8.256$ $df = 4$ $x^2 > x^2_{0.05}$
	국 졸 (퇴)	26.3	73.7	100.0	
	중 졸 (퇴)	14.8	85.2	100.0	
	고 졸 (퇴)	25.0	75.0	100.0	
	대 졸 (퇴)	-	100.0	100.0	
계	27.4	72.6	100.0		
연 령 별	20 대	16.7	83.3	100.0	N = 252 $x^2 = 6.992$ $df = 4$ $x^2 < x^2_{0.05}$
	30 대	16.3	83.7	100.0	
	40 대	33.3	66.7	100.0	
	50 대	32.8	67.2	100.0	
	60대이상	31.0	69.0	100.0	
계	27.4	72.6	100.0		
성 별	남	31.4	68.6	100.0	N = 252 $x^2 = 2.423$ $df = 1$ $x^2 < x^2_{0.05}$
	여	22.6	77.4	100.0	
	계	27.4	72.6	100.0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㉔ 반상구별의식

양반과 상민의 구별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87.2%가 구별이 없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구별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

㉕ 문항별 빈도수 분석 요약

가장의 의견에 대해 68%정도의 응답자는 의견이 다르면 반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 젊은 층일 수록 그 성향이 강하였다.

가구원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형태이며, 사안별로는 농토판매와 직업, 직장이동, 자녀교육, 국회의원 등의 투표행위 등에 있어서는 남편위주 부인상의형이 많으며, 부엌용품의 구입에서는 부인위주 남편 상의형이고,

표 5 - 40 반상구별의식

구 분		구별 있어야	구별 없어야	계	%
학 력 별	무 학	17.1	82.9	100.0	N = 249 $x^2 = 6.656$ $df = 4$ $x^2 < x^2 0.05$
	국 졸 (퇴)	15.0	85.0	100.0	
	중 졸 (퇴)	-	100.0	100.0	
	고 졸 (퇴)	8.1	91.9	100.0	
	대 졸 (퇴)	-	100.0	100.0	
	계	12.9	87.2	100.0	
연 령 별	20 대	-	100.0	100.0	N = 249 $x^2 = 16.068$ $df = 4$ $x^2 > x^2 0.05$
	30 대	4.4	95.7	100.0	
	40 대	8.0	92.0	100.0	
	50 대	20.3	79.7	100.0	
	60대이상	22.0	78.0	100.0	
	계	12.9	87.1	100.0	

내구소비재의 경우는 남편위주 부인상의와 부인위주 남편상의형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家の 승계에 대해서는 70%정도가 꼭 이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이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장남과 종손의 우대, 가문에 대한 우선시에서는 각각 70%와 84%정도가 찬성하고 있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친족보다도 가까운 이웃에 유대감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66%가 찬성하고 지역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급한 일이 있으면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는 57%가 찬성하고 학력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 마을배타의식에 대해서는 84%가 반대하고 있고, 지역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는 차이는 나타난다.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85%의 많은 응답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그 지역별, 성별 차이는 없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낮은 연령에서 애착심이 뚜렷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 정주 의사에 대해서는 53%가 계속 살겠다고 하였고 34%정도는 떠나겠다고 응답을 보였는데, 성별 차이는 없으나 20대의 경우 48%, 30대의 경우 42%가 떠나겠다고 응답하고, 50대는 67%, 60대 이상은 69%가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는 등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활동에는 94%에 이르는 대다수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전통규범의 적용에는 67%정도만 찬성하였다. 이 두 문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평야마을에서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과 전통규범보다는 근대적 제도의 적용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을공동재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90%의 대다수가 찬동하고 있었고,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자가 55%였으며 그 지역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마을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70%가 주민전체의 의견수렴을 원했고, 응답내용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을 수록 주민전체 의견수렴에 찬성하였다.

마을공동신앙에 대해서는 61%가 믿진 않지만 그냥 한다는 의견이었고, 학력이 낮을 수록, 연령이 높을 수록,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공동신앙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산간마을에서 특히 그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을에서 하는 공동놀이와 행사가 주민들의 유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응답자가 75%였으며 지역이나 학력보다는 연령별로 차이가 두드러져 40대 이하는 찬성률이 50대 이상에 비해 낮다.

다음으로 농업에 대한 질문들에서 보면, 우선 농업의 국가근본의식에 대해 80%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높은 농본주의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농사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0%가 농사이외의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농사를 계속하기 싫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20대의 청년들의 경우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응답은 전무하였다. 직업별로도 농사이외의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이 높았다. 영농계승의사를 보더라도 77%가 자녀에게 농사를 계승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 수록 더욱 그러했다.

목돈이 생겼을 때 농사일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47%였으며 그 중 67%가 그 사용처를 농토구입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농사이외의 곳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53%인데 그 중 31%는 저축, 증권에, 26%정도는 주택, 토지 구입에 쓰겠다고 하였다. 새로운 농사기술에 대해서는 55%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41%는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아가며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학력이나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농토가 더 있을 때 재배하고 싶은 작물로는 근교마을은 벼, 평야마을은 벼와 딸기, 중간마을은 땅콩, 산간마을은 인삼을 들었다.

51%정도의 응답자는 필요에 따라서는 농토를 매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67%정도는 땅이 많다고 꼭 부자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두 질문 모두 특히 학력이 높거나 연령이 낮을 수록 그러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였다. 비료나

농약을 써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 수준이었고, 지역별로 볼 때 특히 답작이 우세한 평야마을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풍수사상에 대해서는 63%가 신뢰한다고 하였고, 마을공동신앙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특히 산간마을에서 그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자연재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77%가 단순한 기상이변이라고 하였으며, 그 지역, 학력, 성,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관존민비의식에 대해서는 80%반대에 학력 및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그중에서도 산간마을이 관존민비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유유서의식에서는 반대로 60%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보다는 학력별 차이가 유의미했다. 남녀평등은 73%가 찬성했고, 연령이나 성보다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았다. 반상구별에 있어서는 87%의 높은 비율로 구별에 찬성하지 않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에서 구별에 찬성하는 비율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지수화 및 지수분석

① 가치지수별 도수분포

다음으로는 응답내용에 점수를 부여하여 가치체계별로 합산한 뒤 산출한 가치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여기서는 응답자의 가치지수별 도수분포 현황을 살펴본다.

<그림 5-1>은 권위주의 가치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치지수 분포현황이다. 여기서 보면 지수의 범위는 -14에서 +16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우측, 즉 +쪽에 치우쳐 있다. 이는 권위주의 가치에 있어서 조사대상자들간에 편차가 비교적 높으며 대체로 전통적 가치지향 보다는 근대적 가치지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5-2>는 가족주의의 가치지수별 도수분포도인데 지수의 범위는 -9에서 +7까지를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에 비해서는 보다 정규분포에 가까우며 약간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가족주의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자들간의 편차는 높으며, 평균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주의 관념에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의 지수별 도수분포도를 나타낸 <그림 5-3>을 보면 지수의 범위가 극단

그림 5 - 1 변수별 도수분포도(권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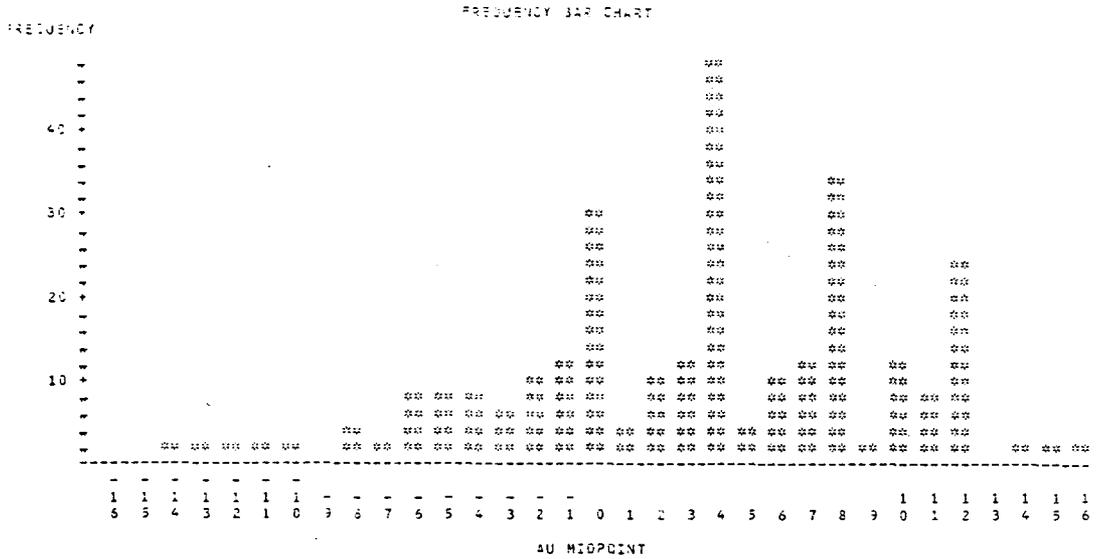


그림 5 - 2 변수별 도수분포도(가족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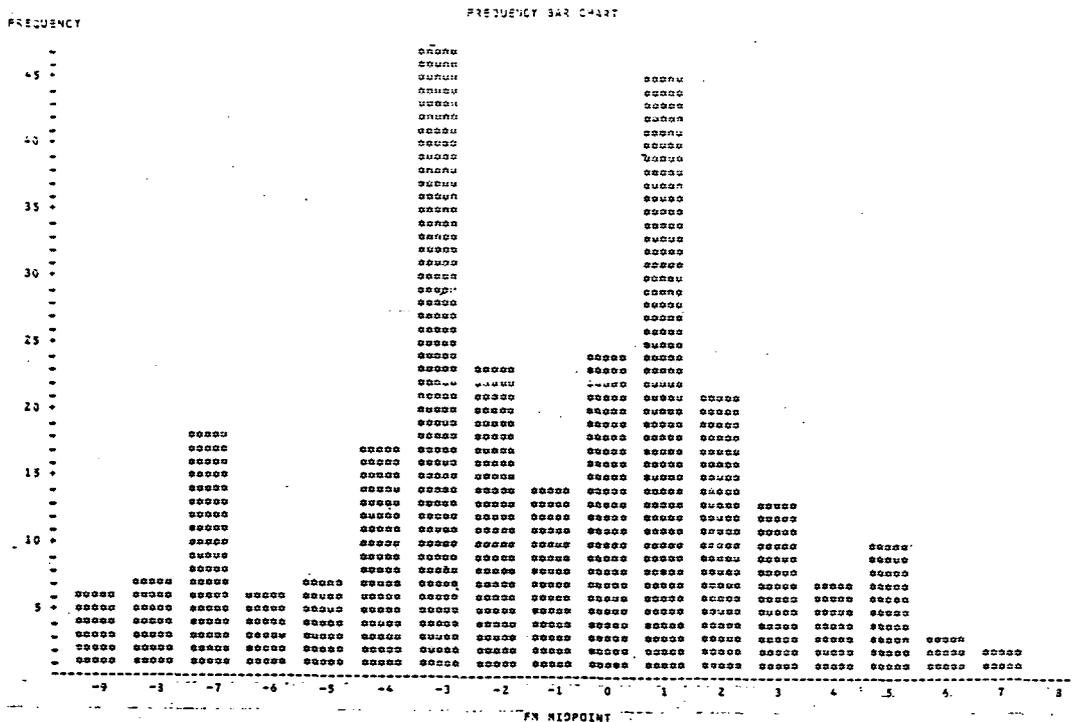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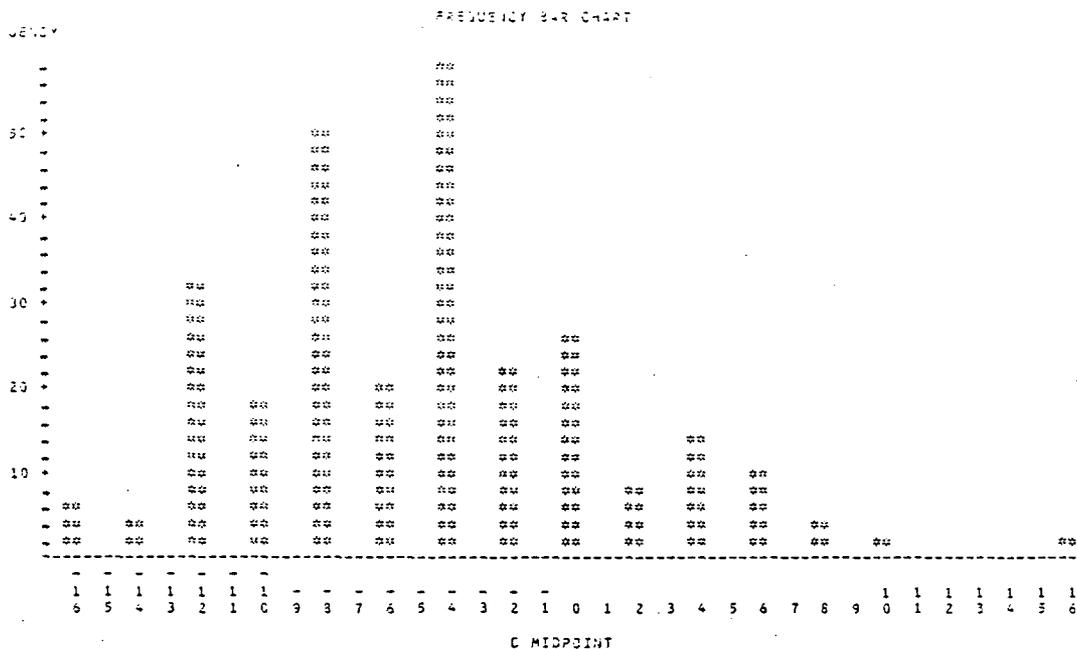


그림 5 - 3 변수별 도수분포도 (집단주의)



적인 + 16 을 제외하면 - 16 에서 + 10 까지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분포상황을 보면 왼쪽인 - 쪽으로 매우 치우쳐 있다. 지수가 짝수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점수부여 과정에서 홀수점수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사대상자들은 대다수가 공동체의 집단주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5 - 4 > 는 민속주의의 도수분포도이다. 각 가치지수마다의 도수는 비슷비슷하며 - 2 의 지수에서 도수가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 쪽의 지수를 가진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었다. 민속주의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편차가 비교적 심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5 - 5 > 는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를 제외한 응답자들의 농분주의 가치의 도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면 도수의 분포는 - 14 에서 + 18 까지 분포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포는 지수 2 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즉 농업종사자 및 농업+비농업종사자들이 바라보는 농분주의 가치는 보다 근대적인 가치지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 4 변수별 도수분포도 (민속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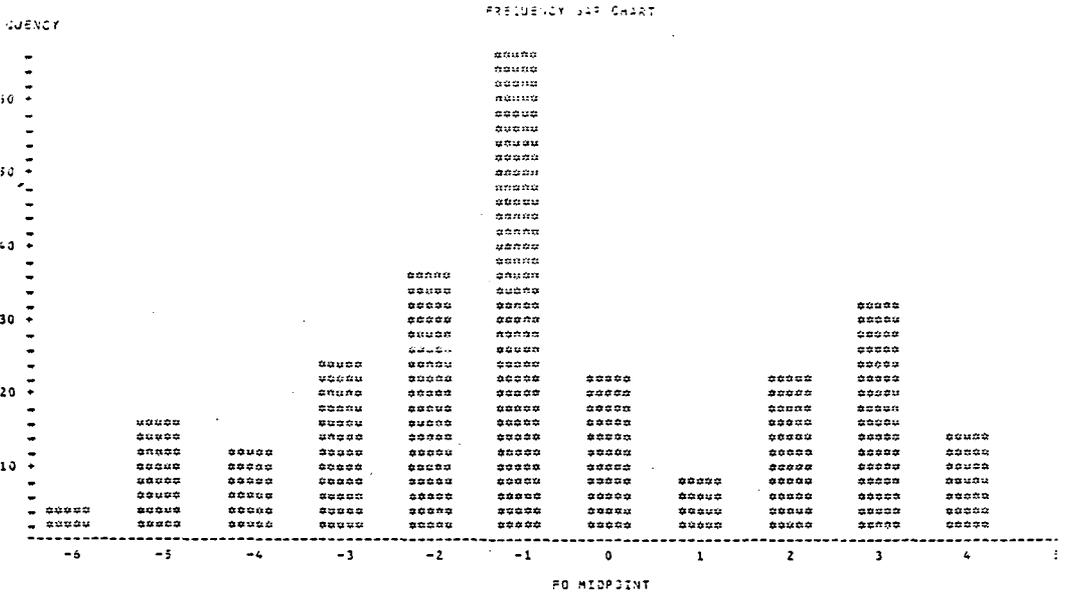


그림 5 - 5 변수별 도수분포도 (농본주의 :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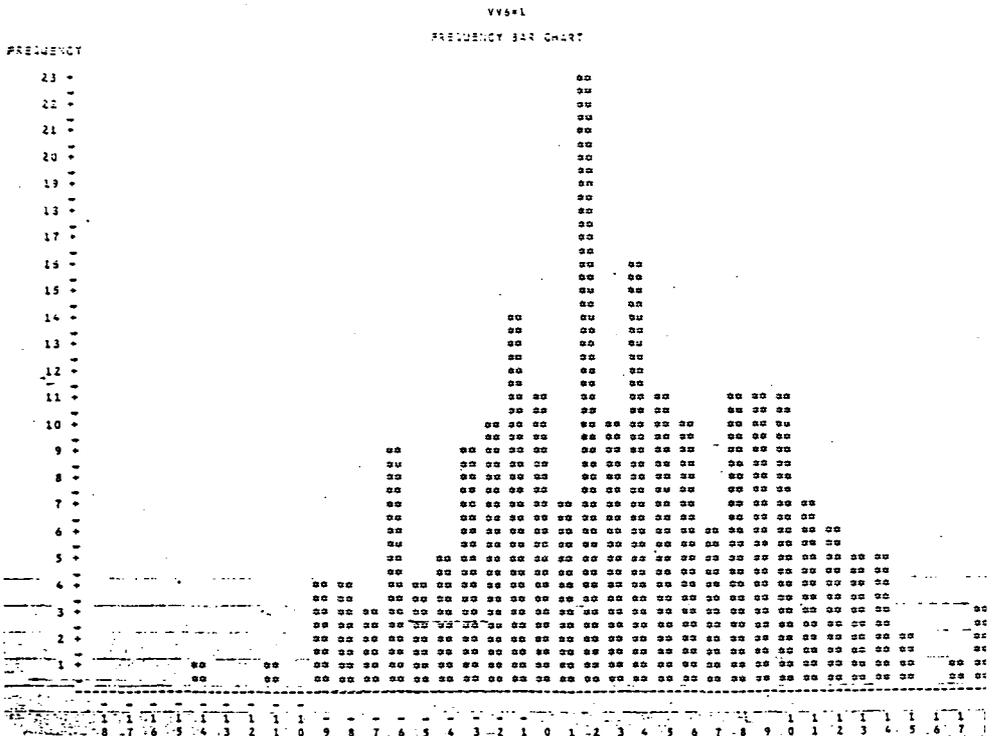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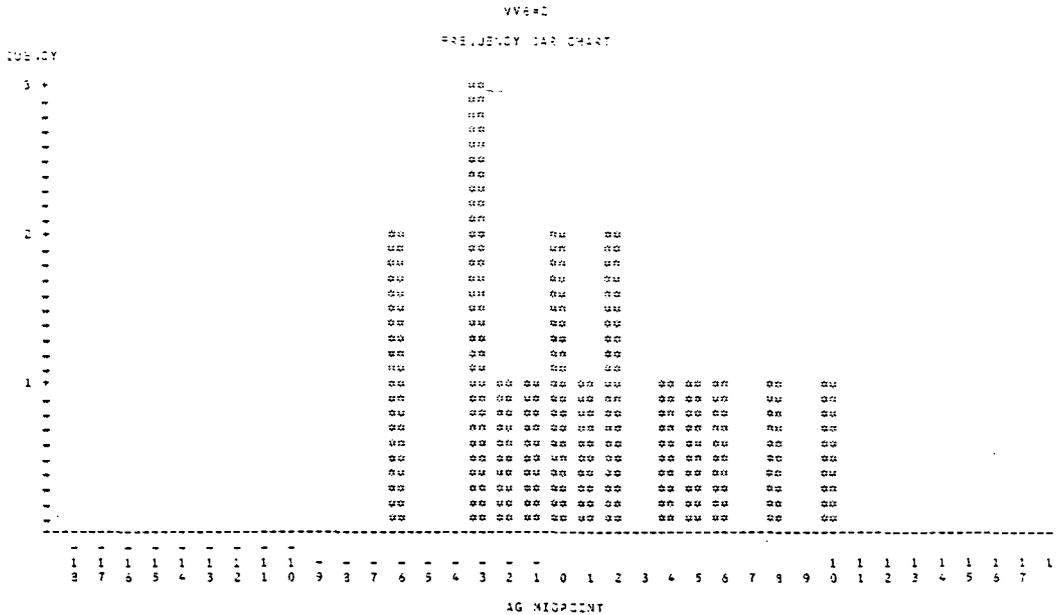


그림 5 - 6 변수별 도수분포도(농본주의 :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마지막으로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들의 농본주의 가치는 < 그림 5 - 6 > 과 같다. 원래 가능한 지수의 범위는 - 10 에서 + 10 이나 응답자들의 농본주의 가치지수의 범위는 - 6 에서 + 10 까지로 나타났다. 대상자수가 적어 분포형태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은 곤란하나 전체적인 형태는 + 쪽에 보다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의 경우도 근대적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치체계별 평균분석

다음으로는 각 가치체계의 전체적인 평균수준을 살펴보고, 또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별로 평균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간의 평균비교에 있어 두 집단인 경우에는 t검정을 하고, 집단이 셋 이상 여럿 일 경우는 분산분석의 F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t검정시에는 두집단의 분산이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을 먼저 실시하였다.

t검정이 실시된 변수는 직업과 성으로서, 직업은 농업과 비농업(농업은 농업종사자 및 농업+비농업의 겸업종사자, 비농업은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 성은 남자와 여

자의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분석하였다. F검정은 그외 지역과 학력, 연령, 경작규모의 4개 변수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각 변수별 가치체계의 평균점수, 그리고 각 가치체계에 대한 변수별 집단간의 비교 분석의 결과치는 다음 <표 5-41>과 같이 나타났다.

가) 권위주의

지수범위 -16에서 +16까지인 권위주의의 전체적인 평균은 3.5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평야마을, 근교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순으로 권위주의 지수의 평균이 높아 평야마을주민들의 권위주의 가치가 가장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산간마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정 통계치는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 수록 평균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가 농업, 겸업종사자보다 더 근대적 가치지향을 보이나 차이는 의미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 수록 지수가 낮아 전통적인 가치지향에 가까웠고 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작규모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더 근대적 지향을 보이고 있었고 그 차이도 유의미했다.

나) 가족주의

가족주의의 평균지수는 -1.26으로 평균적으로는 조사대상자들이 전통적 가치 지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권위주의와 같은 순위로 평균지수가 높으나 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이가 유의미하지도 않았고, 직업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의 평균지수의 차이도 없었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나 여기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이는 경작 규모와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족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특성별로 나누어 볼 때 평균가치지수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집단주의

집단주의의 평균지수는 상당히 낮아서 지수범위 -16에서 +16까지 중 평균 -4.85를 나타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결함의식이 아직도 상당히 강

표 5-41 변수별 가치체계의 평균점수

구분	권위주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민속주의	농본주의	농본주의	
평균	3.51	-1.26	-4.85	-0.10	3.25	0.86	
지역	근교마을	4.04	-1.04	-5.95	0.30	4.31	-1.33
	평야마을	4.11	-1.21	-3.44	0.07	1.96	3.10
	중간마을	3.21	-1.34	-5.21	0.97	4.05	-3.00
	산간마을	2.30	-1.52	-5.28	-1.37	3.28	1.57
	F	1.52	0.23	3.17*	6.57*	1.72	4.13*
학력	무학	0.57	-1.32	-5.68	-0.81	1.05	-1.00
	국졸(퇴)	3.63	-1.43	-5.37	0.07	3.44	0.40
	중졸(퇴)	6.90	-0.14	-2.14	0.21	5.04	3.50
	고졸(퇴)	5.61	-1.61	-3.63	0.26	5.79	2.79
	대졸(퇴)	8.00	-0.17	-5.00	1.50	3.33	1.67
	F	10.48*	1.03	2.95*	1.80	3.52*	1.51
직업	농업	3.46	-1.40	-5.09	-0.17	3.26	-
	비농업	4.29	-1.41	-4.12	1.24	-	0.82
	t	-0.56	0.01	-0.70	-1.84	-	-
연령	20대	7.48	0.03	-2.12	-0.52	5.74	1.57
	30대	5.93	-1.20	-3.30	0.19	5.79	2.45
	40대	4.38	-1.35	-3.89	-0.02	4.47	0.50
	50대	2.02	-1.79	-5.88	0.18	2.90	0.25
	60대이상	0.13	-1.35	-7.42	-0.48	-1.02	-6.25
	F	15.31*	1.49	8.13*	0.69	9.69*	0.84
경작규모	무경작	3.62	-0.62	-3.82	0.09	2.83	0.86
	0-0.5ha	4.17	-0.85	-5.56	0.17	1.41	-
	0.5-1.0ha	3.62	-1.51	-5.44	-0.37	4.34	-
	1.0-1.5ha	3.22	-1.15	-6.09	-0.37	1.43	-
	1.5-2ha	2.74	-2.15	-3.19	0.26	4.78	-
	2ha이상	3.33	-1.77	-4.00	-0.07	4.70	-
	F	0.23	1.00	1.78	0.37	2.64*	-
성	남자	4.17	-1.57	-5.11	0.24	3.03	1.48
	여자	2.74	-0.90	-4.55	-0.49	3.52	0.09
	t	2.01*	-1.56	-0.83	2.01*	-0.58	1.05

* $p < 0.05$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평야마을이 그 중 평균지수가 높아, 가장 근대적인 집단주의 가치지향을 보이는 바, 즉 공동체에의 귀속의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세 마을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다. 평야마을과 나머지 세 마을간의 평균지수의 차이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데, 그러나 학력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그대신 중졸(퇴)과 고졸(퇴) 학력층이 보다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젊을 수록 가치지수의 평균이 높아, 젊은 사람들의 집단주의 의식이 나이든 층에 비해 비교적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우 뚜렷하여 통계적 검정치가 5% 수준에서 의미있었다. 반면에 경작규모와 성에 따라서는 특별한 통계적 차이가 엿보이지 않는다.

라) 민속주의

민속주의 가치는 평균지수가 -0.10 으로 비교적 중간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산간마을이 -1.37 로 다른 세 마을보다 훨씬 낮은 평균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간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 수록 전통적인 가치지향을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통계적 차이는 없고 다만 비농업 쪽의 응답자들이 농업 쪽의 응답자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민속주의 가치에 있어 근대적 성격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평균지수간에 의미있는 차이도 보여주지 않았다. 경작규모도 차이가 없었고, 다만,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민속주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신뢰할만 했다.

마) 농본주의 (농업, 농업+비농업 종사자)

-18 과 $+18$ 의 지수범위에서 평균지수는 3.25 를 보여 근대적 가치지향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았다.

수치상으로는 특이하게 평야마을이 가장 농본주의 가치지수가 낮아 농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평균의 차이가 의미있는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근대적 가치지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졸(퇴)의 경우는 국졸(퇴)보다 약간 낮았으나 여기 속한 대졸(퇴)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령에 따라 볼 것 같으면 연령이 젊을 수록 농본주의 평균가치 지수가 높아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약하거나 富의 원천으로서의 농토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등의 전통적 농본주의 가치의식이 약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경작규모 별로는 통계적으로는 5%수준을 간신히 넘어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으로는 0.5 ha이하의 경작자층과 1.0 - 1.5 ha경작자층이 가장 전통적 농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1.5 ha이상의 계층에서 가장 근대적 농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바) 농본주의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이들의 농본주의 평균지수는 0.86이었다 (지수범위는 -10에서 +10까지였다).

지역별로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평야마을, 산간마을, 근교마을, 중간마을 순으로 농본주의 가치가 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야마을 주민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과 연령, 그리고 성이라는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검정치를 5%수준에서 살펴볼 때 모두 12개의 검정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권위주의 가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가족주의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응답자 특성이 하나도 없었다.

집단주의에서는 평야마을이 특별히 다른 마을에 비해 근대적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민속주의에서는 지역과 성별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산간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특별히 전통적 민속주의 가치를 중시하였고 여자들의 민속주의에 대한 가치도 전통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농본주의에서는 농업종사자들의 경우 학력이 높을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보다 전통적 농본주의 가치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경작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이 역시 일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비농업종사자들과 무직자들의 농본주의 가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평야마을 주민들이 보다 근대적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농업종사자들에 있어서는 비록 그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평야마을 주민들이 가장 전통적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검정 방법을 사용할 때 각 가치체계에 대하여 집단평균의

차이의 (통계적 의미에서의) 유무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각 변수 (응답자 특성) 내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에 여러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범위검정 (multiple range test)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중범위검정은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零가설이 기각된 후 집단 차이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던컨의 다중범위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셰페의 다중비교절차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procedure) 등의 통계적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던컨의 다중범위검정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표 5-42>는 앞의 <표 5-41>에서 집단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만을 대상으로 던컨다중범위 방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단, t검정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들은 여기서 검정을 제외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는 5% 수준에서 판단되었다.

이 표의 집단화 (grouping)에서 영문자 A, B, C 등의 표기는 동일문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또한 A와 B, 또는 B와 C가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은 중간정도로 집단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새삼 강조해 둘 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위주의의 경우 학력과 연령변수가 그 집단 내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중범위검정의 결과 대졸 (퇴)이 가장 덜 권위주의적이고 무학이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중졸 (퇴), 고졸 (퇴)과 국졸 (퇴)은 서로 비슷하게 중간수준이나 중졸 (퇴)과 고졸 (퇴)는 덜 권위주의적인 쪽에, 그리고 국졸 (퇴)는 권위주의적인 쪽에 더 가깝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가장 적은 20대가 가장 덜 권위주의적이며 연령이 높을 수록 권위주의적인데, 30대는 20대의 권위주의 수준과 40대의 그것의 중간정도이다. 반면 50대와 60대는 40대 이하와 따로 구분되어 가장 권위주의적인 쪽에 함께 집단화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의 분기점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지역과 학력, 연령변수에 있어 검정을 해 본 결과, 우선 지역에 있어서는 평야마을과 산간마을은 그 평균치가 평야와 근교마을의 중간정도가 된다. 즉 여기서 우리는 근교마을의 집단주의가 평야마을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분될 만한 수준이며, 중간, 산간마을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력별로 살펴보면 5개의 학력별 집단간에 전체적인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나 다중범위검정을 통한 집단화에서는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검정에서 F값이 5% 유의 수준을 간신히 충족시키기 때문에 집단화 과정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치를 가진 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묶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의 경우 학력이라고 하는 변수에서는 각 집단들이 모두 하나로 집단화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연령별 집단주의의 평균치를 집단해 본 결과 20대와 30대가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60대 이상이 따로 분리된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중간수준인데 40대는 30대 이하에 가깝게, 50대는 60대에 가깝게 집단화되고 있다.

민속주의의 경우에는 지역별 변수 하나만 대상으로 되었는데 그 결과는 중간, 근교, 평야마을과 산간마을 두 개로 집단화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산간마을의 민속주의의 수준이 여타 마을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를 제외한, 말하자면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과 농업외 부문에 일부 종사하는 겸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농본주의 가치에서 다중범위검정을 해 보면, 우선 학력과 경작규모의 각 집단별로 모두 평균값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만 집단화로 나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지고 60대 이상은 별개의 집단으로 묶여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농본주의 가치를 보면 지역변수만이 평균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집단화로 분리될 수 있을 만큼 의미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5-7>은 <표 5-42>의 집단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줄이 쳐진 집단들은 마찬가지로 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요컨대, 던컨의 다중범위검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변수내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는 바, 이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의 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위주의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라서 볼 때 국졸(퇴) 이하와 중졸(퇴)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주의에서는 지역별로는 평야마을과 근교마을이 서로 가장 차이가 나는 집단주의의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위의 권위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서로 다른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민속주의에서는 산간마을이 특별히 민속주의 가치관이 높은 수준이다. 농업에 전·겸업으

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농본주의에서는 연령별로 볼 때 60대 이상이 특별히 농본주의 가치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표 5 - 42 가치체계별 변수의 집단화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평 균	집 단 화	N
권 위 주 의	대 졸 (퇴)	8.00	A	6
	중 졸 (퇴)	6.90	A B	29
	고 졸 (퇴)	5.61	A B	38
	국 졸 (퇴)	3.63	B C	123
	무 학	0.57	C	74
	20 대	7.48	A	33
	30 대	5.93	A B	54
	40 대	4.38	B	55
	50 대	2.02	C	66
	60 대 이상	0.13	C	62
	집 단 주 의	평 야	-3.44	A
중 간		-5.21	A B	38
산 간		-5.28	A B	67
근 졸 교		-5.95	B	76
중 졸 (퇴)		-2.14	A	29
고 졸 (퇴)		-3.63	A	38
대 졸 (퇴)		-5.00	A	6
국 졸 (퇴)		-5.37	A	123
무 학		-5.68	A	74
20 대		-2.12	A	33
30 대		-3.30	A	54
40 대		-3.89	A B	55
50 대		-5.88	B C	66
60 대 이상		-7.42	C	62

(계속)

表 5 - 42(계속)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평 균	집 단 화	N
민 속 주 의	중 간	0.97	A	38
	근 교	0.30	A	76
	평 야	0.07	A	89
	산 간	-1.37	B	67
농 본 주 의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고 졸 (퇴)	5.79	A	24
	중 졸 (퇴)	5.04	A	27
	국 졸 (퇴)	3.44	A	108
	대 졸 (퇴)	3.33	A	3
	무 학	1.05	A	59
	20 대	5.79	A	43
	30 대	5.74	A	19
	40 대	4.47	A	51
	50 대	2.90	A	62
	60 대 이상	-1.02	B	46
	1.5 - 2.0	4.78	A	27
	2.0 대 이상	4.70	A	30
	0.5 - 1.0	4.34	A	71
	무 경 작	2.83	A	6
	1.0 - 1.5	1.43	A	46
	0 - 0.5	1.41	A	41
	농 본 주 의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평 야	3.10	A
산 간		1.57	A	7
근 교		-1.33	A	21
중 간		-3.00	A	1

 $\alpha = 0.05$

그림 5 - 7 가치체계별 변수의 집단화

(가치지수 낮음)

(가치지수 높음)

권 위 주의

무 학 국 졸(퇴) 중 졸(퇴) 고 졸(퇴) 대 졸(퇴)

집 단 주의

60 대이상 50 대 40 대 30 대 20 대

근교 마을 산간 마을 중간 마을 평야 마을

60 대이상 50 대 40 대 30 대 20 대

민 속 주의

산간 마을 평야 마을 근교 마을 중간 마을

농 본 주의

60 대이상 50 대 40 대 30 대 20 대

(비농업종사자,
무직자 제외)

제 6 장

맺 는 말

이상에서 이 연구는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 ~ 2001)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주민들의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현지 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주민들은 연구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충남의 대전, 논산, 부여, 금산의 4개 마을 주민들 273명이었다.

여기서 제시한 분석틀은 농촌가구와 농업이라는 산업, 그리고 농촌주민들이 생활해 나가는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마을사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외적인 충격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가는가를 살펴본 뒤, 그 각각의 변화의 방향에 따라 농촌주민들에게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틀이었다. 그 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한 눈에 알기 위하여 권위주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민속주의, 그리고 농본주의라고 하는 가치체계들을 설정하고 조사결과를 지수화하여 평균수준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조사대상자의 거주마을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경작규모별, 직업별 등의 제반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응답자간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잘 드러내는 것들도 있었다. 즉, 학력의 수준이 높아질 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은 젊은 사람들일 수록,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농본주의에 있어 대체로 보다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평야마을이 집단주의의 가치가 다른 마을에 비해 약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농업종사자와 무직자의 농본주의의 경우도 평야마을이 가장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민속주의에서는 산간마을

이 가장 전통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산간마을의 전통적인 민속행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치는 권위주의와 민속주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둘 다 더 근대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경작면적의 경우는 농민들의 농본주의 가치가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 외에 가치지수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아니었다. 농본주의 가치의 경우도 경작면적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직업의 경우에도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치지수는 하나도 없었다. 즉 농촌주민들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든, 다른 산업에 종사하든, 그리고 경작하는 농토의 규모가 어떠한 직업과 경작규모의 변수에 의해서는 응답자들간에 가치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얼마만큼의 농사를 짓든 그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 연구도 그 일환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연구사업이 조사대상 마을들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 현상적 요인만에 의한 설명을 하는 것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 마을주민 개개인의 의식, 가치관의 변화가 이들 사회, 경제적 변화들을 어떻게 초래하는가, 또는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요하게는 농어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정책의 내용에 따라 목표집단(target group)을 구분하고 이들의 의식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책의 침투효과를 높이는 데 특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록 : 농촌주민 의식·가치관 측정을 위한 가구조사표

* 다음의 설명들 중에서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의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I. 가족, 동족

I-1. 집안의 가장과 가족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___ 1) 가장은 집안을 대표, 관리하므로 가족원들은 무조건 가장에 복종해야 한다.
- ___ 2) 가장의 생각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 ___ 3) 모르겠다.

I-2. (남자 경영주만 응답) 다음 각각은 집안식구간에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1)	2)	3)	4)	5)	6)
	남편이	남편이	부가	부인이	부가	부인이
	혼자	되어	부인과	되어	남편과	혼자
		상의	상의			
					가족	기타
					전원이	
					상의	

가) (농가의 경우)

농토의 판매, 구매 _____

(비농가의 경우)

직장, 직업이동 _____

나) 자녀 교육문제 _____

다) 부엌용품 _____

(예 : 가스렌지) 구입 _____

라) 내구소비재 (예 : 칼라

TV, 냉장고) 구입 _____

마) 국회의원, 조합장

투표 _____

I-3. 장남이 아닌 경우라도 대를 꼭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예
- ___ 2) 아니오
- ___ 3) 모르겠다

I-4. 장남이나 종손과 같이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다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예
- ___ 2) 아니오
- ___ 3) 모르겠다

I-5. 만약에 나에게서는 이롭지만 가문에는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1)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___ 2) 일단은 내가 잘되는 것이 설혹 가문에 누를 끼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___ 3) 모르겠다.

I-6. 선생님은 어디까지를 ‘친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1) 형제 ___ 2) 4촌 ___ 3) 6촌 ___ 4) 8촌 ___ 5) 10촌 ___ 6) 그이상

I-7.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족’이 멀리 산다고 할 때 가까이 사는 이웃과 멀리 사는 친족 중 어느 쪽이 더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아무래도 같은 피를 나눈 친족과 더 친근하다.

___ 2) 남이라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친족보다 친근하다

___ 3) 모르겠다.

I-8. 조상에 대한 제사에는 어느 정도나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기제에는 반드시 거르지 않고 참석해야 한다.

___ 2) 제사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므로 내 일이 급하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___ 3) 모르겠다.

II. 마을사회

II-1. 이 마을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 마을로 들어와서 사는 경우,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___ 1) 이 곳에서 터를 잡고 오래 살아야 우리 마을 사람이다.

___ 2) 본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니더라도 임시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오는 즉시 우리 마을 사람이 된다.

___ 3) 모르겠다.

II-2. 선생님께서는 이 마을에 애착을 가지십니까?

___ 1) 애착을 가진다. ___ 2) 애착이 없다. ___ 3) 모르겠다.

II-3. (자식이 장성한 경우) 선생님께서는 자식이 나가서 살자고 하거나 나가서 사는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할 때,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자식이 어린 경우 또는 미혼인 경우) 선생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자식이 장성한 뒤 또는 자식이 결혼한 이후에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___ 1) 여기서 ___ 2) 다른 데에서 ___ 3) 모르겠다.

II-4. 마을에서 하는 공동생활(예를 들어 도로보수 등)에 어느 정도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자기가 싫더라도 이 마을 사람이라면 참여해야 한다.

___ 2)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참여해도 된다.

___ 3) 모르겠다.

II-5. 마을내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예를 들어 절도, 폭행)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마을의 전통적인 규범에 따라 마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___ 2) 경찰에 고발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___ 3) 모르겠다.

- Ⅱ-6. 마을공동재산(마을논, 밭, 산, 수리보, 마을회관 등)이 마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마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___ 2)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
 ___ 3) 모르겠다
- Ⅱ-7. 마을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이웃에 사는 마을주민들이다.
 ___ 2) 국가(정부)이다.
 ___ 3) 모르겠다.
- Ⅱ-8.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주민들은 몇몇 마을유지(어른)들이 결정한 일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___ 2)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___ 3)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___ 4) 모르겠다.
- Ⅱ-9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동제나 우물지기(칠석제) 같은 공동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1)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 질병이나 액운이 든다는 말이 맞다.
 ___ 2) 믿지는 않지만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므로 그냥 한다.
 ___ 3) 마을 공동신앙은 오늘날엔 할 필요가 없다.
 ___ 4) 모르겠다.
- Ⅱ-10. 마을주민끼리 모여 하는 놀이나 행사는 주민들간의 협동, 유대를 증진시키는데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주민유대에 도움이 된다.
 ___ 2) 그냥 그 때 뿐이고 주민유대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___ 3) 모르겠다.

Ⅲ. 농업, 환경

- Ⅲ-1. 농업은 자고로 천하지대본이며 국가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1) 농업은 아직도 국가의 근본이며 중요하다.
 ___ 2) 농업은 더 이상 국가경제에서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산업(예:공업)이 더 중요하다.
 ___ 3) 모르겠다.

Ⅲ-2. 선생님은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비농업 종사자 해당없음)

- ___ 1)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계속 농사만 짓겠다.
 ___ 2) 다른 능력이 없으므로 계속 농사만 지을 수 밖에 없다.
 ___ 3)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겠다.
 ___ 4) 모르겠다.

Ⅲ-3. 자녀의 대에서도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농업 종사자 해당없음)

- ___ 1) 내 자식의 대해서도 농사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
 ___ 2) 본인의 의사대로 하겠으나 가급적 하라고 권유하겠다.
 ___ 3) 본인의 의사대로 하겠으나 가급적 하지 말라고 권유하겠다.
 ___ 4)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리겠다.
 ___ 5) 모르겠다.

Ⅲ-4. 선생님께서는 만약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어 쓰는 경우 제외)

- ___ 1) 농도구입 또는 기계, 농사시설 장만 등 전부 농사일에 쓰겠다.
 ___ 2) 일부는 다른 데에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농사일에 쓰겠다.
 ___ 3) 일부는 농사일에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데에 쓰겠다.
 ___ 4) 농사말고 다른 데에 전부 쓰겠다.
 ___ 5) 모르겠다.

* 1), 2)의 경우 농사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 3), 4)의 경우 다른 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Ⅲ-5.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농사기술(품종선택, 토지이용방법, 농약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농업 종사자 해당없음)

- ___ 1) 뭐니뭐니해도 그전부터 해오던 기술이 제일 낫고 낫선 기술을 썼다가 농사를 망치면 안된다.
 ___ 2) 새 기술은 바로 수용하기보다는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아가며 나도 적용한다.
 ___ 3) 새 기술은 빨리 수용하여 적극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___ 4) 모르겠다.

Ⅲ-6. 선생님께서는 경지가 좀 더 있다면 (약1,000평) 어떤 작물을 우선 재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농업 종사자 해당없음)

가) 작 물 _____

나) 이 유 _____

Ⅲ-7. 농토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1) 농토는 조상대대로 짓던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팔면 안되고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___ 2) 농토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
- ___ 3) 모르겠다.

Ⅲ-8. 옛날에는 농토가 많아야 부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지금도 뭐니뭐니해도 농토가 많아야 부자다.
- ___ 2) 땅이 많다고 해서 꼭 부자는 아니다.
- ___ 3) 모르겠다.

Ⅲ-9. 옛날에는 거름이나 퇴비를 썼으나, 지금은 화학비료, 농약들을 더 많이 씁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1) 화학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면 땅이 나빠지므로 생산물이 적어지더라도 비료, 농약은 되도록 쓰지 않는다.
- ___ 2) 많이 생산하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___ 3) 모르겠다.

Ⅲ-10.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풍수사상을 믿어왔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1) 묘자리나 집터가 나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 ___ 2) 풍수사상은 믿을 바가 못된다.
- ___ 3) 모르겠다.

Ⅲ-11.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면 자연재해가 생긴다.
- ___ 2) 단순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것이다.
- ___ 3) 모르겠다.

Ⅳ. 외부사회, 기타

Ⅳ-1. 군청, 면, 농협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1)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옳다.
- ___ 2) 그 사람들은 우리 농어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이므로 우리에게 잘 대해야 한다.
- ___ 3) 모르겠다.

Ⅳ-2. 나이든 사람에 대한 공경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나보다 나이든 사람에겐 무조건 공손해야 한다.
- ___ 2)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어떤 사람들에겐 굳이 공손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___ 3) 모르겠다.

IV-3. 남녀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1) 여자는 남자와 평등할 수 없다.

___ 2) 여자도 사회에 진출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동등히 대우받을 수 있다.

___ 3) 모르겠다.

IV-4. 양반, 상민의 구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___ 3) 모르겠다.

V. 자녀교육관

V-1. 자녀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1) 많이 배워 돈을 버는 것

___ 2) 많이 배워 농촌에서 고생스러운 농사를 안 지으려고

___ 3)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V-2. 다음 어느 경우를 자녀가 출세 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___ 1) 돈을 많이 벌었을 때

___ 2)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___ 3)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기술자, 연예인 등)

VI. 대중매체 이용현황

VI-1. 어떤신문을 보고 계십니까?

___ 1) 중앙 일간신문

___ 2) 지방일간신문

___ 3) 경제신문

___ 4) 농업관련신문

___ 5) 안본다.

VI-2.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을 다음 중 어느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순서대로 3개를 표시하십시오)

___ 1) 신문 ___ 2) 잡지 ___ 3) 라디오 ___ 4) T.V ___ 5) 기타

VI-3. 라디오나 TV에서 좋아하시는 프로는? (2개만 표시)

___ 1) 뉴스 ___ 2) 스포츠 ___ 3) 연속극 ___ 4) 코메디

___ 5) 농사정보 ___ 6) 일기예보 ___ 7) 토론, 대담 ___ 8) 퀴즈

___ 9) 기타

가구번호 _____ 면접자 남 . 여

1. 마을에서 친하게 어울리며 자주 이야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구 분	성 명	주 요 화 제	만나는 빈도
	1.		월·주당 회
	2.		
	3.		

2.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때 주로 누구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여 (혹은 의논하여) 결정하십니까?

구 분	상 황	의논대상자
	1. 자녀나 형제들의 상급학교 진학문제로 고민할 때 2. 이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망설여질 때 3. 어느 벼 품종을 선택해야할지 망설여질 때 4. 장례나 결혼등 행사예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을 때 5. 은행융자를 받고 싶거나 그 절차를 잘 모를 때	

3. 품삯결정등 마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은?

① () ② () ③ ()

4. 돈이 급히 필요할 때 자주 신세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

5. 마을지도자로서 가장 존경받은 분은?

() 그 이유는 ()

參 考 文 獻

- 高永復，1965，“農村人の 社會的 性格，”韓國農村社會研究會，農村社會學，進明出版社。
- _____，1967，“韓國家族文化的 變容過程，”高大 아세아問題研究所，아세아研究，10.2.
- 金璟東，1964，“態度尺度에 의한 儒教價值觀의 測定，”韓國社會學 1輯。
- _____，1965，“農村人の 價值觀，”韓國農村社會研究會，農村社會學，進明出版社，
- 金大煥，1976，“韓國農村社會의 變動의 論理，”韓國社會學 10輯。
- 金一鐵，1985，“農村社會의 構造的 轉換과 農民의 價值觀，”思想과 政策，2.2.
- 吳乃元，金鍾埰，崔洋夫，1986，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2 - 1985 基準年度 調查結果，韓國農村經濟研究院。
- 王仁權，1983，現代의 農村社會學，博英社。
- 尹堉燮，1971，“態度尺度에 의한 農民의 傳統的 價值觀과 몇가지 社會經濟的 變數와의 關係，”全北大 農大論文集 2輯。
- 李杜鉉，1974，“民俗學의 定義，”韓國民俗學 概說。
- 林在海，1986，民俗文化論，文學과 知性社。
- 林熿燮，1980，“現代韓國에 있어서의 價值志向의 變化와 適用에 관한 研究，”韓國의 社會와 文化 3，精神文化研究院。
- 張壽根，1980，“總說，”韓國民俗大觀 1，高大民俗文化研究所。
- 崔洋夫，吳乃元，1986，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 - 調查研究設計，韓國農村經濟研究院。
- 崔在錫，1976，韓國人の 社會的 性格，開文社。（初版은 1965 年度）
- 崔弘基，1971，“農村人と 都市人の 態度 및 行動의 差異，”서울大 人文社會科學 論文集，17輯。
- 韓哲雄，1978，“韓國農民의 意識構造 分析，”農協調查月報，1978.3.
- 洪承稷，1969，韓國人の 價值觀 研究，高大 아세아問題研究所。

黃仁政, 1980, 韓國의 綜合農村開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Buttel, F.H., & W.L. Flinn, 1976, "Sociopolitical Consequences of Agrarianism," *Rural Sociology*, 41.4.

Kluckhorn, C., & others, 1951, "Values &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T.Parsons & E.Shi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 Press.

빈

면

M 15-10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 ⑩

農村住民의 意識, 價値觀

1989年 12月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①-①⑤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株式會社 文 苑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